



지난해 제 28차 평의원회의 축하행사로 열린 카네기홀 음악회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뉴욕 개막

8월 21일~23일 더블트리 호텔(Fort Lee, NJ) 개최

제29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열린다. 예년보다 조금 줄어든 인원으로 60~7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주동창회는 참석 동문들의 건강과 정부의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하며 안전에 매우 중점을 두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김광수(미생물학 77)박사, 김주형(전기공학 97)박사가 참석한다.

김광수 박사는 세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1977년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학교 테네시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박사는 얼마전 세계최초로 69세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 뇌 이식을 통한 맞춤형 치료

에 성공, 학계에 큰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김 박사는 지난해 10월 미주동창회 주최로 열린 서울대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에서 강연, 전문지식과 내용으로 후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또 다른 강연자인 김주형 박사는 일리노이대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교수로 재직중이며 이족 로봇의 균형 및 보행 제어, 민첩한 동작을 위한 축형 로봇의 구조 및 제어, 소프트 로봇의 구현, 물리적인 인간-로봇 상호 작용 등을 연구해 왔다. 김 박사는 디즈니 과학기술연구소인 '디즈니 리서치'를 운영하며 세계적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의 주인공 베이맥스를 실제로 만들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본행사의 공식일정은 2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접수, 김광수 박사, 김주형 박사의 강

연으로 이어진다. 그 후 4시부터는 한반도 미래에 관한 패널 토의가 전문가 4명이 초청되고 오인환 박사가 진행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토의가 끝난 후 저녁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22일은 조찬 후 9시30분 부터 평의원 회의를 진행한다. 점심 오찬 후 4시까지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 후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과 초청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축하공연에는 테너 문현호, 바리톤 한경진 동문 등의 품격있는 음악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오전 조찬 후 마지막 지부회장단 모임이 있으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원자 위주로 동창회 측에서 특별히 마련한 골프 아웃팅이 있을 예정이다.

Covid-19사태로 지난해처럼 많은 동문들이 모임지는 못하지만 동문들의 성원과 관

심으로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호텔예약안내

참석하시는 분들은 2020년 8월5일까지 예약을 하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해야한다.

①최용렬 이사(201-582-5214/ CP 201-615-0102) ②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 group code에 B01을 타입하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할 수 있다. <관련내용 2, 3, 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회.장.인.사.말

성공적 평의원회의 개최에 힘 모아주시길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규제가 더욱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디스트(Methodist)라는 별명을 부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함께 모여 제 29차 평의원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갑시다. 오늘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내일 우리의 미래를 세우고 밝힐 것입니다.

신영남 회장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2020.7.22.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회보에 공지드린대로, 미주동창회는 제 29 차 전국평의원회의를 예정대로 8월21일 ~23일(금토일)에 뉴저지주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예년에 못지 않은 출중한 강사들의 세미나 및 패널 토의 세션이 준비 중이며, 동창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의 연례회의가 29년 차가 됩니다. 역대 회장단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지금까지 평의원 회의를 중단없이 개최해왔습니다. 아마도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동창회의 전통을 면면이 이어 왔으리라 짐작해봅니다.

6월 중순 행사 시행 결정 후, 예상치 않은 남서부 일부 지역의 코로나 사태의 확산 보도가 있으나, 행사 개최지인 뉴욕/뉴저지는 코로나위험으로 부터 대부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정부 행정명령 하에서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평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던 <순수 이성 비판>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쳤기에,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그의 동생 찰스 및 동료들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열정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규칙적인 종교 활동을 보며, 주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메

한 사회와 국가가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를 세우려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가꾸고 쌓아올린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미주 동창회의 전통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통해 본받을 만한 문화를 이뤄가고자 합니다.

제 29차 평의원회의에 평의원 및 종신이

강.연.자.소.개

신경과학, 줄기세포의 세계적 석학



김광수 교수 Professor, Harvard Medical School

김광수 교수는 세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1977년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학교 테네시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교수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중뇌 도파민신경세포의 퇴행에 의해 발생하는 파킨슨병 등 뇌신경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69세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 뇌 이식을 통한 맞춤형 치료에 성공하기도 했다. 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환자의 피부 세포를 이용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를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로 만든 후 환자에게 이식해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없이 작용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껏 iPS를 사용하여 파킨슨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며 또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수십년의 기초 연구가 임상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 교수는 세계 유수의 학회를 통하여 특강초청 30여회와 각종 신경생물학 또는 줄기세포 분야 학회의 조직위원으로 활동, 85편의 논문과 9권의 저서 및 5편의 특허를 발표하였다.

로봇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자



김주형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김주형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의 연구원으로 활동, 이후 서울대 전기 컴퓨터 공학과 박사학위를 마쳤다.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간형 로봇의 균형 및 보행 제어를 연구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ersity 에서 DARPA Robotics Challenge 에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13년 부터 6년간 디즈니가 운영하는 과학기술연구소인 '디즈니 리서치에서 Research Scientist로 활동하며 다양한 시도와 세계적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몇해 전 세계적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의 주인공 헬스케어 로봇 '베이 맥스'를 실제로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김 박사는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 이족보행(二足歩行) 로봇 전문가다. 그는 2013년 삼성에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갔다.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을 떠난 이유는 '꿈' 때문이다. "언젠가 이런 로봇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디즈니에서 일하며 다양한 로봇, 가상현실, 모션캡처를 개발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냈다. 김 박사는 현재 일리노이대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교수로 재직중이며 이번 강연에서 새로운 로봇의 세계를 동문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납부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포상자 명단

서울대 총장 공로패 수상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단체/학번, 거주지, 공적사항, 구분. Lists award recipients including 오홍조, 손재욱, 윤상래, 워싱턴 DC지부.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패 수상자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단체/학번, 거주지, 공적사항, 구분. Lists award recipients including 손대홍, 한귀희, 광준경, 이강원, 김병운, 정평희, 한경진, 김권식, 홍종만.



윤기항(법대 65)

/ 경제 칼럼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며〉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김춘수가 1969년에 발표한 시다. 김춘수는 그 시에서 봄의 생명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사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썼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뿔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산문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봄의 생명력을 이미지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무의미의 시'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김춘수는 표현주의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나의 마을>(Moi et le Village)이라는 그림에서 그의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23살 때 파리로 유학을 갔던 초현실주의 화가다. <나의 마을>이라는 그림에는 멀리 마을의 전경이 보이지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등으로 채색된 커다란 말의 머리와 사람의 얼굴, 그리고 큰 생명나무가 화폭을 압도하고 있다. 동화 같은 마을 풍경이지만 초현실적이다. 김춘수는 샤갈의 초현실적 회화로부터 이미지를 강조한 무의미의 시를 실험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이미지만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춘삼월에 내리는 눈은 보는 이에 따라 꽃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상서로운 눈으로 환영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삼월에 눈이 오면 쥐뿔만한 겨울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 올리브빛으로 채색이 될 것이고 아낙네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워 차가워진 밤의 공

기를 훈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토지가 비옥해져 그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3월의 한설이 반드시 추위와 움츠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충격도 때로는 생태계에 선순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태풍이 세차게 불어 바닷물을 밑에서부터 크게 휘저어주면 바다의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이치는 자연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태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경제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태풍이 휩쓸고 간 자국처럼 경제에 생채기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어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식 시장경제 자본주의체제가 종말을 고할 것이 라는 우려 섞인 견해도 있었고 공산주의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더욱 체질이 강해져 그 이후 세계경제를 제패해 왔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전 세계가 별별 떨고있다. 온 천지에 눈이 내리고 있다. 그것도 3월이 아니라 7월에 북풍한설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을 지나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는 지난 150여 년 동안만 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현상을 경기순환이라고도 한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경제위기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론 1930년대에 일어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 2007년의 서브프라임문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이를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도 부른다) 등도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위기는 이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화되어 있는데 온 세계가 멈춰선 것이다. 어느 나라도 이 위기로부터 비켜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심지어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한번도 이는 거의 무용지대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공급체인이 붕괴된 데다가 수요측면의 충격과도 만만치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몰아친 경우는 별로 없었다. 대공황, 대침체, 그리고 아시아와

환위기는 주로 수요측면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경기불황이었으며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따른 위기는 공급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해서 일어난 경기불황이었다.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변질까 걱정하고 있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선 미국의 실업률은 1933년에는 24.9%까지 치솟아 올랐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929년에는 실업률이 4.0%였다. 그 당시 고통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근로자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가 된 셈이다. 그 당시에는 보통 가장 한 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가정 당 한 가정은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대공황이 발발하기 전에 23,000개에 달했던 미국의 은행들은 1934년까지 9,000여 은행이 파산해 14,400개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산업생산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물가는 30% 이상이 하락해 미국경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우리는 대공황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강통을 옆에 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사진을 통해 자주 보아왔다.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라고 선언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뉴딜 정책)를 취하기 시작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경기회복의 견인차가 되었지만 그러나 대공황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미국경제는 1933년을 저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1937년에 다시 리세션이 불어 닥쳤다. 마침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0년 말부터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대공황은 미국인의 삶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갈 것인가?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골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난 후 그동안 꾸준히 확장세를 지속해 왔다. 실업률도 2020년 1월 3.6%, 2월 3.5%, 3월 4.4%를 기록하는 등 1960년대에 경험했던 완전고용수준의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금년 4월에 실업률은 14.7%까지 상승했으며 그 이후 6월에는 11.1%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0월 미국의 실업률 10.0%와 비교해 보아

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V자형 경기반등 또는 U자형, L자형, W자형 경기회복을 예측하기도 하고 나이키로고형 경기반등을 점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은 다 부질없는 노력일 뿐이다. 지난 6월 말 IMF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20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4.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8.0%,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앞으로 2~3개월 후에 다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 말고는 숫자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제2차 파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는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의 길이와 깊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그것은 짐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자에게 한 제자가 "점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7할은 맞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점이 열 번 가운데 일곱 번은 맞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점이 맞을 가능성은 열 번 가운데 다섯 번 정도라는 것이 확률이론의 결론이다. 물론 숫자를 맞출 확률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도 "하나님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구약성경(잠언)에 나오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는 위기 이후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복원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학과 풍자찬한 시대를 풍미했던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은 "인생은 가까에서 찍으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찍으면 희극이다"(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춘삼월에도 눈이 내리는 환파를 겪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서울대미주 동창회 제29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8월 21일 (금) | 8월 22일 (토) | 8월 23일 (일) |
|------------------------|-----------------------------------|--|
| 1:00 PM - 2:00 PM 등록접수 | 6:30 AM - 8:30 AM 조찬 | 7:00 AM - 8:30 AM 조찬 |
| 2:00 PM - 2:50 PM 강사 1 | 8:30 AM - 9:30 AM 각위원회회의 | 8:30 AM - 10:30 PM 지부회장단모임 |
| 3:00 PM - 3:50 PM 강사 2 | 9:30 AM - 12 NOON 제29차평의원회의 | (OPTION) |
| 4:00 PM - 5:30 PM 패널토의 | 12 NOON - 1:00 PM 오찬 | 12 NOON - 5:00 PM GOLF OUTING |
| 6:30 PM - 9:30 PM 만찬 | 1:00 PM - 4:00 PM 제29차평의원회의 | BALLYOWEN G.C. _Links (No.1 G.C. in New Jersey) |
| | 6:30 PM - 10:00 PM 환영만찬/축하공연/초청공연 | |



-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20년 8월 21일(금) ~ 23일(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 **호텔예약안내 *(8월5일까지 할인이 적용)**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20년 8월5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최용렬 이사(201-582-5214/ CP 201-615-0102) ②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하시고, group

code에 B01 을 타입하시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 도착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최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 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버가 전화로 연락 줌
■ **응급상황이나 문의** : 연영재 사무총장, 201-233-7108 / 문현호 총무국장, 646-770-7028



정대영 논설위원
(문리대 71)

/ 역사칼럼 /

8.15 빛과 그림자①

- 희망과 분단의 서막 -

1. 8.15 의미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길게 크게 보는 법과 짧게 자세히 보는 법이다. 이른바 역사 해석 방법이다. 길게 크게 보는 법은 역사철학가들이 즐겨 사용한 다. 반면 짧게 자세히 보는 법은 정통 사학가들의 방법이다.

랑케(독일 실증주의 사학자, 1795-1886) 이후의 과학적 실증주의 전통이 세워지면서 넓게 받아들여진 방법이다. 길게 크게 즉,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칼 맑스이다. 그의 계급 사관이 대표적이다. 사관(史觀)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면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확립해 가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랑케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경험적 사실을 중시하고 가치 중립적이다.

한국의 역사를 길게 보면 <고조선-삼국시대-통일신라-후삼국시대-고려-조선-일제강점기-남북한 시대>로 도식화 된다. 이렇게 도식화 하면 8.15는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아픔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반도에서 마지막 통일 국가는 918년 고려가 이룬 것이다. 이후 조선으로 국호는 바뀌었지만 단일 국가로 거의 1천년을 지내왔다. 그리고 1910년 인접국에 흡수병합되어 국가가 소멸되는 역사적 수모를 당했다. 1945년 일제 지배하에서 해방되었고, 바로 2국가가 탄생하여 우리는 현재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천년 만의 분단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역사를 짧게 자세히 보면 <왕조시대-공화국 시대(자유자본주의 대 공산사회주의)>로 도식화 할 수 있다. 한국은 8.15 해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자유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오늘날 G7(세계 최 선진국 모임)에 초청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얻었다. 단군 5천년 역사 이래 중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첫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것이다.

2. 8.15의 역사적 의미

8.15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역사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주어진 해방론' '자율적 해방론' '복합적 외인론' 등을 거론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단의 시작'으로 봐야한다. 어쨌든 분단의 관점은 한반도 역사를 정치지리적 관점에서 조감한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내부 시스템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한민족은 극히 최근까지 5000년 전(신)시대를 왕조 국가의 신민으로 살아왔다. 세습 군주 밑에서 적당한 신분 차이를 이루며 살아 왔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1945년 8.15를 경계선으로 하여 왕조 시대에서 공화국 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커다란 국가적 특징이다. 모든 국가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스스로 지배자를 선출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이른바 서구식 민주주의이다.

미국에서는 1776년 독립으로 쟁취한 것을 우리는 거의 200년이 지난 다음에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남북한에 각각 전혀 다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남한은 자본주의가 도입되었다. 반면 북한은 전혀 새로운 개념인 공산사회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런 점에서 8.15는 분단 시대의 시작점이며, 공화국 체제의 시작이며, 상반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스템이 동시에 지리적으로 위치만 다를 뿐 한반도에 분점되어 도입된 시기였다.

3. 왜 분단인가? 그리고 왜 분단이 이리 오래 가는가?

8.15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분단이 오래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초기엔 38선도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블랙 스완'(2007년)을 써 유명해진 나심 탈레브는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썼다. 레바논 출신인 그는 당시에 회고하면서 레바논 내전 발발 당시 상황을 "내 주변의 어른들은 입만 열면 이 전쟁이 '불과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회상했

다. 실은 17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도 말이 다. 그리고 "1960년대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자 '머칠 있으면 돌아가겠지' 하며 트렁크 반도 채우지 않고 마이애미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졌을 때 베를린으로 망명한 러시아인들도 머지않아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희망에 눈이 멀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블랙 스완, The Black Swan, 2008년, 한국판 번역 54면)

분단의 원인으로 나는 외인과의 내인을 든다.

(1) 외적 요인 -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산물

한반도의 국가 운명을 이해하는데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차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세력 균형에 영향을 받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평화시기가 아닌 변화기와 혼란기에는 더욱 영향을 받는다. 조선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거세진 제국주의 물결과 국제정치 질서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야심과 교활함에 조선이 당한 것이다. 서구 강대국이 뭇 본 체 했기 때문이다. 1885년 한국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이 한국의 남쪽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섬 거문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이다(거문도 사건). 당시 조선인들은 그 연유를 몰랐다. 왜 영국이 보잘 것 없는 남해의 작은 섬을 점령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였다.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영국이 팽창하던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영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대륙에서 펼쳐지는 팽창과 봉쇄의 전선 즉, 세력 균형선은 <흑해 크리미아 반도(1854년 크리미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남진 저지) - 아프카니스탄 - 한반도>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거문도는 러시아가 남진을 해야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일 해협 사이 남단에 위

치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실제로 1905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지구를 반 바퀴 돌고 이곳을 지나다가 일본함대의 공격을 받고 궤멸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극동의 조그만 나라 일본에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에 일본과 영국은 동맹사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세계 전략은 영일 동맹(1902년) - 가스라.테프트 밀약(1905년, 영국의 우방인 미국이 일본과 맺은 비밀 각서,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권에 둔다는 양해) 등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묵인하였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않고 일본에 합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합병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에 역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해 오던 중국은 서구 열강에 힘을 못쓰던 시기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영리 대립은 미소 대립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소의 세계 질서 균형선이 그어졌다.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 분단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것은 약소국인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분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2) 내적 요인 - 한반도의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좌우 대립

한반도 분단에 고착제 역할을 한 것은 사상과 이념이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각'이란 말을 한다. 한반도의 운명도 그랬다.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 전파된 공산사회주의 이념이 1945년 한반도 분단점에서 만났다. 그 때 1945년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 선이 재편될 때, 그 사상 갈등이 분단의 접착제로 작용했다. 필자는 평소애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 사이에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을 늘 궁금해해 왔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김종필(전 국무총리)의 증언과 김동길(전 연세대 역사학 교수)의 증언을 보고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김종필은 "당시 지식인치고 사회주

그리고 대립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관계가 되고 인류를 위협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그날을 되새겨야 한다. 그 시절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보듬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오늘'을 노래하고, '내일'을 꿈꾸는 일들이 이어져야 한다. <편집자 주>

의 아닌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 그리고 김동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당시 70%가 사회주의를 신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역사서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출판부가 1990년에 간행한 '한국사특강'에는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다수의 지지기반을 가졌는데 미 군정이 이를 무시해 버렸다"고 기술하고 있다(295면). 이어 "미 군정은 광범위한 대중 기반을 갖고 있던 좌익의 움직임에는 적대적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296면)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사회주의가 폭넓게 인민대중에 받아들여졌는가?>

한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전후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극동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1918년 이동휘(李東輝)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韓人社會

黨)을 조직하였고, 이것이 1921년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해방 정국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되는 여운형(呂運亨)이 이 조직에서 『공산당선언』을 번역하여 간도지방과 기타 지역에 배포하는 등 활동을전개하였다. 이후 러시아, 중국의 한인들 사이에 각종 공산당 조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수용, 소개하면서 사상단체비밀 공산주의그룹들을 조직하여 민족해방과 그들 이론인 '계급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에서는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루고 있을 정도로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朴殷植은 1920년 '獨立運動之血史'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전제정치를 타도하여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고 제민족의 자유와 자결을 선포하였다"고 적고 있다. 동아일보는 1921년에 무려 73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과 활동 및 볼셰비키혁

명 등을 연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지 조선의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동시에 열망했던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는 적고 있다. (신편 한국사 제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발간, 2003년).

<당시 한국 농촌 사회의 피폐상>

그러면 왜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당시 한국 사회 구조와 농촌의 피폐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한국은 조선 시대 이래 소위 '가렴주구(苛斂誅求)'란 말이 상징하듯 하층민들은 상층민 즉 관료와 양반들의 전횡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폐해는 일제 강점기에도 지속되어 농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왔다.

"1942년 당시 기준으로 한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었다. 그리고 농민의 80% 이상이 소작농이었다.이들 소작농은 수확 곡식의 50% ~ 70%에 이르는 고율소작료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곳에선 소작료가 80%

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296면) 이러한 농촌의 수탈 구조는 해방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즉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뿌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사회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몰수 무상배부'란 공산사회주의자들의 토지개혁 선전에 농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신편 한국사 제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발간, 2003년)

<전통적 국권회복 운동에 공산주의 사상의 대두 - 좌·우의 대립>

조선은 역사적으로 대륙의 강대 세력에 압박 받는 피해를 다수 겪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외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임진왜란기의 의병들 - 구한말 시대 의병 - 동학 혁명 - 국권회복운동 - 3.1 독립운동으로 면면히 민족주의 자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조에 1920년대부터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이념 갈등이 빚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 회고록 /

안익태와 코리아 환타지아



이명숙(음대 52)

국민의 애국심을 불타게 일으키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애국가는 나라마다 그의 역사, 전통을 국민에게 일깨워주고 다짐하는 애국선서의 역할을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자국의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는 193개가 된다고 한다. 모나코 같이 작은 나라에서부터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 중국도 물론 애국가가 있다.

볼행하게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나는 학교 조회시간이면 전교생이 일본 국가를 노래 불렀다. "기미가요"라는 일본국가에 엄중하고 느리며 우수에 찬 단조(minor key)의 곡으로 일본 천황의 장수를 기원하는 소망의 곡이었다.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엄중하고 지루한 곡이었다. 군주제도를 가진 나라 영국의 국가도 그리고 4분지3박자의 월츠(Walts)형이어서 국민이 힘차게 제창하며 행진해 나갈수 있는 음악곡조는 아니다.

그 이듬해 나는 학교 단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애국가 레코드 제작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나의 성악가로서의 첫 데뷔였다. 전국 초등학교 조회시간에 이 레코드를 틀어서 학생들이 다 같이 제창하기를 위한 것이었다. 1946년 늦가을 레코드회사 '지구사' 사무실에서 최 선생이라는 기술자가 알루미늄 같은 납판 레코드를 제작하였는데 지금 그 레코드는 행방이 묘연하고 세월은 흘렀다. 역사 기록이 허술한 것을 탓해야 하는지 이 유성기 판을 찾아 틀어 볼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후 한국정부는 1948년에 안익태 작곡인 "애국가"를 국가로 지정했다. 안익태가 1936년 작곡한 교향곡 "한국 환타지아"(한국 환상곡) 후반부 합창으로 연주되는 가락이 우리 애국가이다. 내가 동경에서 독창회를 가졌던 1961년 12월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안익태씨가 "한국 환상곡" 연주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한국 환상곡"을 올바르게 연주하려면 통상 관현악단 수와 합창단 수를 크게 늘려 대편성해서 연주해야 된다고 하셨다.

한국 국민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리 보존하자고 드높이 우렁차게 노래하는 우리 애국가는 긍정적인 뜻을 가진 장조(Major key) 애국가"를 국가로 지정했다. 안익태가 1936



안익태와 애국가(사진원쪽) 1942년 8월 29일(국치일)에 LA시청 앞에서 거행된 태극기 헌기식, 한족연합회(집행위원장 김호)주도로 태극기가 일제시대에 외국 관청에 처음 게양되었다. 여자는 한복, 남자는 정장을 하고 참석하여 애국가를 합창 할때 감격하여 모두 울었다.

고음까지) 8도되는 음역을 가졌고 노래 박자는 4분의 4(4/4)이며 알맞게 짧은 18소절을 가진 곡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소리 높여 부를수 있는 이 곡이 우리 애국가이다.

이번 8.15 광복절에도 국민이 다 함께 그리고 힘차게 우리 애국가를 불러 애국심을 다시 한번 선사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한국 예술 종합학교 음악대학 객원 교수 역임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민들만의 정서가 있다. 그 정서는 정신과 문화가 함께 만들어 낸 것으로 오랜시간동안 DNA에 새겨져 있는 그 무언기라고도 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 날이면 우리들은 생각치도 못했던 애국심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일본정부의 독도 망언을 들을때 마다 알수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잠재의식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이라는 정보는 우리의 뇌와 몸을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억압하면서 식민통치를 이어갔고, 이름을 바꾸게 하거나 일본어를 쓰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음악, 미술,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식민지화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문화적인 몰락을 바라보면서 세계문화의 중심에서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신은 이미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그와 발맞춰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 또한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를 돕고, 이끌어 나가는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문화권에 살면서 국제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Covid-19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류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차별과 억압

NE동창회 온라인 포럼 개최

김경일 박사·양나래 성악가 초청 강연

<공대 58> <음대 08>

지난 7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정선, 문리 66)의 첫 번째 온라인 포럼이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삶 속에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열고자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도 초청, ZOOM을 통해 서로 마주 보며 포럼을 진행했는데 4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Harvard University와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에서 40여년 간 교편을 잡은 김경일 박사 (공대 58)는 '건축이란: 그 논리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의식적 행동의 의도와 그의 수행을 위한 최적의

행동은 어떻게 구상되는가'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의도적 행동의 논리(Logics of Deliberate Action)를 창조, 특히 건축설계 과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뒤이어 성악 전공 후 샌디에고 오페라단을 비롯한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 온 양나래 동문 (음대 08)이 '오페라 속 기호와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악보 속 기호와 무대 위 상징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창작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강의 후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나눔의 시간도 가졌는데 특별히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



김경일 박사 양나래 성악가

장이 참여,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동창회 근황을 전해 주셨다. 뉴잉글랜드 포럼 New England Forum은 매달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인데, 8월에는 특별히 광복절을 기념하여 8월 15일(토) 오전 9시 30분에 포럼의 문을 연다. 8월 포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15 빛과 그림자 - 희망과 분단의 서막** 강사: 정태영 (문리 71)동문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으나 본 강사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풀어 나간다. 아울러 사관(史觀)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 '집은 언제 사야 하나요?'

강사: 이재봉(공대 72) - <Boston지역에서 20여 년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US/Mass주 부동산연합회 정회원>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주택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해답을 드릴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열려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snuuane@gmail.com)로 참여 신청을 하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 포럼 동영상은 동창회 웹사이트(snuuane.org)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정선 회장은 "폭넓은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 포럼이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동창회 화상 독서클럽 모임

7월 11일 오전 10시 시카고 동창회 (회장 장윤일, 공대 60) 독서클럽이 1차 모임을 영상(zoom meeting)으로 가졌다. 이번 MEETING은 박중희 동문(의대 69)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일 영상미팅 접촉시험을 위해 모임을 거쳐 가지게 되었다. 이날 선정된 책은 "The Foreign Student"(Susan Choi 1998, "외국인 학생"으로 번역됨) 와 "The old man and sea"(Ernest Hemingway, 1952)였다. "The Foreign Student"는 한국인 2세 작가인 Susan Choi가 1950년대 유학한 한국인 아버지를 모델로 쓰여졌다. 이 소설은 특별히 6.25후 유학 오신 선배님들의 회고의 시간이 되었다. 박창만 동문의 추천으로 다시 읽은 "노인과 바다"는 학창시절 읽고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읽은 감상의 차이점을 서로 나누었다. 이 짧은 소설이 플러처상과 노벨상을 받



게 되었는가를 새삼 느꼈다는 동문들의 감상이 많았다. 김윤태 동문도 코로나로 고전하고 있는 지금을 산티아고 노인고 상어의 사투, 모비딕에서의 사투 등과 비교하며, 인간과 동물의 사투를 통해 결국 인간은 자연을 보다 더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2차 독서회 모임은 11월 14일이고, "리진" (전2권, 신경숙, 문학동네)과 "The Tattooist of Auschwitz" (Heather Morris, Harper 2018)을 읽고 토론한다.

/ 모집공고 /

시카고 동창회 장학생 선발

시카고 동창회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고취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모집한다.

- 모집인원 : 약간명 (10명 내외 예상)
- 장학금액 : 1 인당 \$2,000
- 응모자격 : 시카고 및 인접지역 (IL, WI, IN, MI, IA)에 거주(permanent address) 하는자로서 High School Senior,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유학생 포함). 단, 본 장학금 과거 수혜자는 재신청 불가.
- 응모마감 : 2020년 9월 5일
- 구비서류 :
 1. 원서 1통 (원서용지는 www.snuuachicago.org 에서 download 받을수있음)
 2. 추천서 1통(소속 학교 교사/교수)
 3. 성적증명서 (copy of official transcript)
 4. Essay on the reasons for applying and future personal aspiration (limit to less than 2 Pages)
- 원서제출 : 원서는 이메일 snuaachicago@gmail.com 로 보낼것. (Subject란에 학생이름을 쓰고, e-서류가 아닌경우는 scan을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동창회 e-mail 주소로 보내면 된다)

동창회비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미주동창회웹사이트 snuuaa.org 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단체,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 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체,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지부 새 임원단 선출

신임회장에 지흥민 동문

<수의대 61>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조정현 수의대 58)는 7월8일(수)에 코리아 가든 식당에서 현회기 마지막 회의를 갖고 회장단 인수 인계와 더불어 새 회장단이 출범했다. 새 회장으로는 지흥민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번 회의는 2월29일 Corona Virus Seminar 개최 후 4개월 이후의 만남이었다. 마지막 회의 공고 이메일에서 조정현 회장님은 현 회기중 Covid-19 으로 다른 회의나 모임 없이 연말 파티와 Corona Virus Seminar만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남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가운데 마스크라도 쓰고 만날 수 있고 또 문을 연 식당이 있음을 고마워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

게 처신 하여야 할지와 연말 파티 장소 예약 등 동창회 차후 활동에 대하여 의논했다. 특히 지난해 동안 총무로 봉사한 조정현 동문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총무는 인수인계 파일 박스를 전하면서 이미 시스템이 잘 짜여 있어서 차후 연말 파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새 회장단을 격려했다. 신임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흥민 회장(수의대 61), 이성숙 부회장(가정대 74), 유미영 총무(음대 87), 김진우 재무(공대 62), 손재욱 고문(가정대 77), 정홍택 논설(상대 61), 주기목 감사(수의대 68)

<기사제공= 이성숙(가정대 74)>



지흥민(사진 왼쪽) 회장과 조정현 전 회장.

스트립스 연구소 최혜련 교수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식품영양학>

코로나 19변종 초강력 전염성 첫 연구

여성 과학자 최혜련(사진)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이가 미국과 유럽의 대륙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 세계 최초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내놨다.



코로나19 대유행 원인을 놓고 기후, 유전자와 면역 체계, 비만 등 다양한 분석이 진행중인 와중에 바이러스 변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생의학연구소로서, 화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플로리다주 스트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을 이끈 최 교수는 D614G라고 불리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 전에 비해 세포 배양 실험에서 10배가량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인체 세포 침투 시 활용되는 이 바이러스의 돌기형 외부 구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이 전 바이러스보다 4~5배 더 많이 갖고 있어 세포 침투에도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지난 4월 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가 발견해 미국과 유럽의 가장 일반적인 변종이 됐다고 발표했지만, 실

제로 이 변종의 침투력과 특성을 분석해 강한 전염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은 최 교수가 전 세계 처음이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보냈으며 현재 전문가들의 논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 식품영양학과 미생물학으로 학사, 석사를 딴 뒤 1980년 미국으로 유학, 미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13년간 재직하다 2012년 같은 미생물학자인 남편과 함께 스트립스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다. 최 교수 부부는 2003년 코로나19의 같은 계열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증군) 발병 때 이 바이러스의 리셉터(receptor)를, 1996년에는 에이즈(AIDS) 바이러스의 코리셉터(co-receptor)를 처음 발견한 이 분야의 석학이다.

종신이사 추대



정재훈
(공대 64)

정재훈 박사는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31세 때 미국에 와 롱비치에 정착했다. 말단 제도사로 Tayco Engineering에 입사한 뒤 주경야독으로 캘스테이트 롱비치에서 석사 UC버바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실려 발사된 우주 정거장용 로봇팔의 극저온 내부 신경조직을 개발했고 2004년 화성에 착륙한 쌍둥이 로봇탐사선'스피리트'(Spirit)와 '오퍼튜니티'(Opportunity)호의 극저온 신경조직 외 1563 종류의 열 조정장치를 개발 장차에 화성탐사선에 기여한 공로로 NASA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현재는 Tayco Engineerin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정 박사는 격려와 성원의 마음으로 미주동창회에 최근 1만달러를 기부하였다. 5천달러 기부로 종신 Silver이사로 추대 되었으며 나머지 5천달러는 미주동창회 활동 후원금으로 기부되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부고 /

(고) 노갑준 (의대 73)



노갑준 동문이 소천하였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0년 도미, 스웨디시 병원에서 인턴, 레이던트과정을 마치고 1985년부터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한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아리랑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오래 역임하며 의미있는 사회활동을 이어왔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홍금아씨, 2녀 등이 있다.

(고) 강천호 (사대 56)



강천호(사대 56) 동문이 6월 19일 소천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남가주 Edison Comp.에서 Electrical Engineer 로 은퇴했다. 그는 재미시인협회 회원이었고 한미문화재단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백두산에 흐르는 강", "침묵의 언어" 등이 있다. 장정자(간호대 61, 전 서울대합창단 단장) 동문의 남편이다.

(고) 김광서 (의대 47)



김광서(의대 47) 박사는 1965년부터 거주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9년 7월 30일 향년 9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23년 황해도 출생인 김 박사는 일본(니혼대), 한국(서울대), 미국(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1949년) 이학 석사, 1952년 이학 박사(서울대)에서 생리학 및 의학을 공부하였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강서라씨와 두 딸 등이 있다.

(고) 원광웅 (공대 60)



원광웅(공대 60) 동문이 6월 22일, 양로원에서 노환으로 소천하였다. 원광웅 동문은 경기고교와 서울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Flour건설회사에 오랫동안 재직, 은퇴했다. 노환으로 양로병원에서 3-4년 치료 받고 있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남가주동창회 온라인 강의

Covid-19 세금 및 정부혜택 강연

강호석 회계사 초청

<상대 81>

지난 7월2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민일기)에서는 온라인강연 세번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30여분간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강호석(상대 81, 동창회 감사·사진) 강사의 강연을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강호석 동문은 현재 GSK LLP 회계법인 대표이다.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 인해 IRA 또한 7월15일 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의 경우 중소기업청 (SBA) 에서 제공되는 두가지 융자 프로그램을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 융자는 융자금액을 적절하게 사용시 최대 전액탕감이 가능한 직원급여보존 프로그램 (PPP)으로, 최대 융자 금액은 월 평균 직원 급여의 25배다.

두번째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재난 대출 프로그램인 경제손실 재난 대출 (EDL)이 있으며, 해당 융자의 경우 최대 30년 대출이 가능하다. 경제 손실 재난 대출의 경우 SBA 심사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이와 별개로 직원 유지를 위한 혜택들도 시행중이며, 직원들이 정부의 명령으로 격리가 된 경우, COVID-19 진단을 받은 경우, COVID-19과 관련하여 격리된 사람을 보살피는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소가 폐쇄된 경우 등 각 케이스에 따라 직원들의 일부 임금에 대하여 세금혜택 (Paid Sick Leave / Family Sick Leave)을 주는 것도 있다. 또한 만약 비즈니스 자체



가 COVID-19으로 인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불가했거나, 또는 작년 동분기 대비 총 수입이 50% 이하로 감소 되었다면, 고용 유지 세금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 1명 당 최대 \$10,000의 임금에서 50% 최대 \$5,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자에 대한 공제 제한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2018, 2019, 2020년도의 비즈니스 손실을 세금보고 수정을 통해 각 년도의 5년 전까지 소급 적용 하여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도 세금보고 신고 마감일이 7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 1분기, 2분기 예납 세금 또한 7월 15일까지로 자동 연기되었다. 이어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홍성선(약대 72) 총무국장의 "현재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국들의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경

제 전망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략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정도의 기업체, 사업체들은 전과 다름 없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살포하는 여러가지 금전, 세금혜택으로 지금 당장 현금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마치 전통제를 맞은 것 같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년 초가 되면 전통제의 효과가 끝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걸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두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모두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 강연은 7월 24일, 김자성(의대 79) 동문이 "코로나 후 시대를 사는 통합적 생활 수련"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더 많은 동문들의 화상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사=홍성선 문화국장>

윤동주미주문학상

변만식 작가 특별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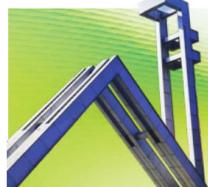
올해의 '윤동주미주문학상' 특별상에 번역작가인 변만식(사진) 동문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변 동문은 올해 불퍼낸 윤동주영역시집 'Yoon Dong-ju Selected Poems'으로 특별상에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상패와 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변 동문은 황해도 개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과 재학 중에 미 육군 기관지인 'The Star & Stripes'(1951-1953)사에서 통 번역 기자로 근무했으며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중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 1967년 도미했다. 포토맥 포럼, 윤동주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구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꾸준히 한국의 명시를 영역해 소개하고 있다. 윤동주미주문학상은 지난 2018년 제 1회 수상자로 노세용 시인에 이어 지난해 제 2회에는 조옥동 시인(사대 58)이 수상했다. 윤동주미주문학상위원회(위원장 최연홍)에는 백순(법대 62) 동문 등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 골프대회

지난 6월 23일 공과대 남가주 동창회 골프클럽(회장 서치원·공대 69) 주최로 Lakewood City에 위치한 Lakewood Golf Club에서 친선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공대 골프클럽에서 문리대 골프클럽과 상대 골프클럽 회원들을 초청한 친선경기였다. 이날은 화창한 날씨여서 푸른 풀밭에서 햇살을 맞으며 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노명호(공대 61/자기회장), 서치원, 김상찬(문리 65), 김병연(공대 68), 성주경(상대 68), 한효동(공대 58), 임준택(상대 68), 강성진(문리 66) 동문 등 8명이다. 공대 A Team과 문리대는 접전 끝에 Tie를 이루었고, 상대와 공대 B Team이 거른 시합에서는 상대 Team이 우승했다. <기사=홍성선 문화국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미국시인 소개 /

Carolyn Mary Kleefeld 캐롤린 메리 클리펠드

캐롤린 메리 클리펠트는 영국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비주얼 아티스트(화가)이다. 캘리포니아 주 서부 해안지역 빅서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집과 소설집 등 11권을 출간했다. 그의 작품은 한국어와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Braille 프랑스 점자로 번역되어 세계 유명 대학에서 필독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녀의 미술작품은 세계 여러 곳의 화랑과 박물관, 그리고 개인 예술 소장관에 전시되어 있다.

OBEISANCE TO THE MOMENT

*Down below, the sea sobs
upon thirsty sands.*

*Above, ancient beacons orbit
the ebony oceans of night.*

*I gaze in wonder,
aware of this transitory existence,
shedding my extraneous garb
in obeisance to the moment.*

*Dawn will come, oh so soon
and sweep away
the enshrouding darkness,
yet unseen stars
will ever cast their ancient light.*

이 순간에 경의를 표하며

저 아래에서, 바다는
목마른 모래 위에서 흐느낀다.

저 위에선, 오래된 별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를 선회한다.

경이 속에 나는 응시한다.
이 덧없는 실존을 인식하며
겉옷을 떨쳐버리며
이 순간에 경의를 표하며.

새벽은 곧 오리라,
그리고 애워싼 어둠을
쓸어 가리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별들
태고의 빛을 영원히 비추리.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HERE I FIND YOU

*I find you in the yearning,
in the last plea of twilight,
in the darkening silhouettes of trees,
in the seamlessness of things.*

*As the quietude unfolds
within the somber, settling house,
its redwood walls lose their ghosts.
For the moment, only silence
inhabits this dusky sea.*

*And here in the seed
you dwell, in all faces, no faces—
in the enveloping darkness expanding,
throbbing with life,
yet beyond this, in the nothingness,
in the blue well of silence,
in the stillness of eternal communication*

여기에서 너를 발견한다

동경(憧憬) 속에 너를 발견한다,
황혼의 마지막 간청 속에,
어두워져 가는 나무들 그림자 속에,
삼라만상의 조화 속에.

엄숙하고 침묵이 가라앉은 집안에
침묵이 펼쳐질 때,
적송나무 벽에는 유령도 얼씬 않고
당분간 정적만이
이 거룩한 바다에 감돈다.

그리고 여기 씨앗 속에
당신이 산다, 모든 얼굴 속에, 얼굴 없이—
휘감아드는 어둠 속에
생명으로 확장하고 고통치며,
그리고 그 너머 공허 속에
영원한 교감의 정적 속에
침묵의 푸른 우물 안에.

CRREDIT:
First appeared in Bridging the Waters:
An International Bilingual Poetry Anthology,
co-published by Yoon-Ho Cho,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and Stanley H. Barkan,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3)

ON VAGABOND DAWNS
Rich in colours, shapes and texture,
the vivid images of the painter-poetess's vagabond-like fancy range
from cyclical rhythms of nature to

the timeless spiritual potentialities of
the human mind . . . I perceive the
all-encompassing vigour of Carolyn
Kleefeld's individual style that not
merely alludes to outstanding repre-

sentatives of the poetic tradition, such
as Rimbaud, Pound, Eliot, Lawrence,
Kazantzakis, and others, but rather
incorporates them into "poetic tapes-
tries" of her own.

—Prof. Dr. Bernfried Nugel
Director, The Centre for Aldous Huxley
Studies, University of Münster,
Münster, Germany



Lake Bled, Slovenia 조리개 F/11, 셔터 스피드 1/250 초, ISO 250, 초점거리 35mm

노인이 되면 변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의 것은 약해지는 쪽으로의 변화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마음을 우울하게하고 서글퍼지게 할 수 있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다 나쁜것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책임감으로 부터의 해방이다. 학생때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또는 부모의 기대 때문에 공부를 해야했다. 경쟁한다는 것은 긴장을 가져온다. 시험을 본다는 것, 특히 입학시험은 긴장의 극치이다. 노인이 되면 시험 걱정은 안해도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이루고 이끌어야 하였다. 아내의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야하고 자식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야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 남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만 주의 하면 된다. 늙어서까지 자식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일은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해야할 일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는 노인이라는 시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

/ 삶과에세이 /

노인이 행복한 이유

해 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만 행복해질 수 있는 데는 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만큼은 있어야 한다. 돈이 넉넉치 않다면 거기에 맞추어 소비를 줄여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아 인심을 쓰려는 생각은 단념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 남에게 무엇을 바라는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진다. 경제적 정신적 자립은 노인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둘째, 건강해야 한다. 자동차도 오래타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평소예 준비를 잘하면 좋은상태로 한동안 유지 할 수 있다. 건강도 평소예 운동, 잠, 음식에 주의하여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것은 하

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늙어가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고 신체적 변화를 받아드리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둘 다 건강해야 한다.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위사람들과의 건전한 인간관계이다. 그러므로 노인행복의 세번째의 조건은 친구다. 친구는 인생의 가장 귀한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좋아하는 친구, 보고싶은 친구, 무엇을 주고싶은 친구, 비밀을 이야기 하고 싶은 친구, 내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것이 내가 내린 친구의 정의다. 친구가 한사람만 있어도 세상사는 것이 즐겁다. 배우자도 결국은 친구에 속한다. 친구에도 문제가 있다. 좋



나두섭 (의대 66)

아하면 좋아할수록, 정이들면 정이 들수록 헤어질 때가 문제다. 나는 개를 참 좋아했다. 10여년 같이 지내다 먼저 보낼때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므로 자기와 친구 사이에는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친구에게 모든 정을 걸지는 말 것을 나는 권장한다.

노인 행복의 네번째 조건은 신앙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서 누구에게 종교를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나와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각자의 철학과 선택에 달렸다. 나는 신앙을 택하겠다. 노인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누구나 한세상 사는 것, 이왕이면 즐겁고 건강하고 멋있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동문서 /

안락 병실

- 호스피스 -



서윤석(의대 62)

호스피스 병실로

검붉은 가시밭 복도를 디디며 온 환자 마지막 병상에 오른다

불개미 떼처럼 모여든 아픔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절망 더불어 두려움 앞세우고 같이 늙는다

이제 오직 바라는 것은 긴혹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편안함 그것이다 자연의 모습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만 손을 놓아주기 기다린다 눈물이 씻기고 하늘을 받고자 한다

태어나고 떠나가는 순리의 되풀이 속에서 무거운 옷을 벗고 되돌아가는 날 주위에서 맴돌던 영혼도 떠나가고 아픔도 멈추고 수렁에서 헤매던 육신에 평화가 내린다

안락병실에서 같이 아파서 땀흘리던 남은 사람들 아픔을 나누던 마음으로 그 평화를 나눈다 두 손 높이 들고 정중히 하늘을 받는다

*호스피스(Hospice) 말기의 암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남은 생존기간의 통증조절, 존엄사까지도 도와주는 합법적인 의료행위.



김도연(재료공학 70)

/ 제언 /

입학 50주년, 그리고 VERITAS LUX MEA

지난 5월 중순, 총동창회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은 조금 뜻밖이었다. '입학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다. 총동창회에서 필자와 같은 1970년 입학생 모 두에게 보낸 소식일 것인데, 그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모교의 배지(Badge)를 신청하면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였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가 총동창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계기로 되었다. '서울대학교란 이름 덕분에 누린 것이 더 많은 삶이었으니 오히려 필자가 동창회와 대학에 감사할 일이다.

70년대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배지는 필수품이었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만이 대학에 진학하던 시절이었으니, 대학생이란 신분이 갖는 무게가 지금과는 달랐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서울대학교라는 가치가 함께 했으니 스스로를 자랑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버스 탈 때 배지를 달고 있어야 대학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를 필수품으로 여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어쨌건 배지만 있으면 어디서나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던 때니 가짜 노릇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가짜 학생의 결혼 주례까지 서 주었다는 교수 이야기도 있었다.

총동창회 편지에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배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월계관을 가로지르는 펜과 햇볼, 그리고 가운데

놓인 책자의 왼쪽 페이지에 쓰인 VERITAS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의 LUX MEA가 반가웠다. 그런데 사실이 배지를 처음 받았을 때인 50년 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생경한 것은 우리 문화 및 전통과 전혀 무관한 라틴어다. 이 글을 책자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즉 VERI LUX TAS MEA로 읽는 것이 맞다는 동료들도 많았다. VERITAS LUX MEA

라틴어는 서양서도 낯선 고어 모교문장에 우리 전통 담기를

가 '진리는 나의 빛'이란 설명은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학교 배지에서 라틴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영미계 대학의 경우다. 독일도 프랑스도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학 배지나 문장에 라틴어의 관행은 없다. 다만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있지만 일제하의 대만제국대학 시절을 모두 포함해 스스로의 역사를 1928년에 시작된 배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월계관을 가로지르는 펜과 햇볼, 그리고 가운데

VERITAS는 1636년 개교한 하버드 대학의 문장(紋章)에 새겨진 글이다. 아마도 초대 총장께서는 서울대가 하버드 같은 명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미국에는 하버드 외에도 대학 문장에 라틴어를 쓰는 대학이 많다. MIT를 상징하는 문장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학인(學人)과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장인(匠人)이 함께 하고 있다. 교육목표

가 두뇌로 지식가치를 만드는 과학자와 손으로 경제가치를 만드는 기술자 육성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MENS ET MANUS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머리와 손'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실제로 지식을 만드는 과학자는 국격(國格)을 높이지만 상품을 만드는 기술자는 국부(國富)를 쌓는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는 대부분의 서양인들도 읽는 순서조차 모르는 고어(古語)가 된 듯싶다. 인터넷에는 프린스턴대학에 대한 질문이 올라 있는데, 대학 문장에 적혀 있는 VET TES EN NOV TAM TUM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이 흥미로운데, 그렇게 뒷줄에서 아

무슨 뜻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이 흥미로운데, 그렇게 뒷줄에서 아

랫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왼쪽 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VET NOV TES TAM EN TUM 으로 읽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VERI와 TAS가 아니고 VERITAS인 것처럼 TESTAMENTUM이 한 단어라는 설명도 함께 있다.

대학의 보수성은 지켜야 할 가치지만 이제 라틴어는 이렇게 잊혀진 언어가 되었고 일반인에게는 고전(古典)으로서의 의미도 사라진 듯싶다. 그런 의미에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문장은 조금 신선했다. 이 대학의 모토는 역시 라틴어로 FIAT LUX인데, 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문장에는 이를 영어로 해석한 LET THERE BE LIGHT로 적혀 있다. 여하튼 미국 대학들의 문장에는 대부분 그들의 사회의 종교적 전통이 드러나 있으며, 그런 이유로 라틴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VERITAS도 신약 성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LUX MEA도 마찬가지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준 반가운 소식 속의 배지를 접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배지 속의 VERITAS LUX MEA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한글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 써도 좋겠다. 아니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면서 서울대학교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새로운 문구(文句)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창들을 비롯한 대학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일이다.

*본 회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관약춘추 /

몽쳐서 남 주자



강경희(외교 84)

올 초 코로나 외증에 TV조선에서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국민들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 여기서 상위에 뽑힌 트롯맨들이 학교 교실을 무대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데 이 교실의 급훈이 '불러서 남 주자'다. 열심히 노래 불러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게 목표인 학교다.

이 슬로건은 서울대인(人)이기도 한 한동대 설립자 고 김영길 초대 총장의 '공부해서 남 주자'를 떠올리게 했다. 작년에 별세한 김 전 총장을 몇 년 전에 만나본 적 있다. 학창 시절 '공부해서 남 주자'란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자란 세대로서 '공부해서 남 주자'는 그의 교육 철학은 뒤 통수를 때리는 듯한 깨달음을 줬다. 일곱 글자 중에 딱 한 글자 바꿨는데 그 의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

혈기 왕성한 10대에 닭장처럼 좁은 교실

에 갇혀 재미 없는 암기식 공부를 머리에 쑤셔넣어야 하니 어지간한 인내심과 절제력 아니면 해내기 힘든 게 한국식 입시 공부다. 영영이 들썩이는 제자나 자녀들을 놀라 앉히면서 어른들은 "나 좋자고 공부하라는 거냐. 나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끝도 없이 공부 이기주의(利己主義)를 강조했다. 고 김영길 총장은 1995년 2월부터 19년간 한동대를 이끌면서 '공부해서 남 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수한 성격으로 입시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공부 이기주의의 승자들'이다. 그래서인지 이 이기적인 경쟁자들이 학연 따지며 똘똘 뭉치는 건 혹 가진 자들끼리 더 가지려는 담합 행위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 타 대학 동창회에서는 활발한 모임이 오히려 서울대 동창들끼리는 덜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일벌레로 소문난 신임 이희범 동창회장의 취임 일성이 배움도,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창들끼리 더 자주 뭉치게 만들고 모교와도 끈끈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나라가 잘 되려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해서 남 주자' 대신 '공부해서 남 주자'의 가치관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동창회도 '우리끼리 뭉치자'에 그치지 말고 '몽쳐서 남 주자'를 모토로 의미있는 모임과 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람, 사람들 /

자연과 우주와 시를 노래하는 과. 학. 자

장욱일 박사 (공대 59/ 과학자, 시인)

장욱일 박사는 인터뷰 요청에 “난 그저 서울대를 졸업했을 뿐 인터뷰할 만한 자체가 못됩니다” 하시며 참으로 겸손해 했다. 과학자는 선입관이 딱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연과 나무 또한 우주여행 등의 문학과 과학을 접목시키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과학자의 섬세함은 자연의 신비를 잘 조화시킨 훌륭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자연과 시의 이웃들'이라는 카페에서 '금관시인'으로 불리우며, 스승인 임보 시인은 호월을 '검증된 금관시인'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시집에 실린 '아름과 슬픔끼리' '달과 선인장 꽃' '바람의 등대' '구절초' 등의 시를 읽으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확인된다. 장 박사는 "자연과 우주를 여유롭게 응시하며 나를 찾고, 이웃을 찾고, 관계를 맺는 시 쓰기는 언젠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 4개의 과학자 기술상과 17개 특허는 동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장욱일 박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 <취재=백옥자 조직국장>



국의 몇 대기업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일했고, 미 기술학회 임원으로도 있었다. 기술 전문지의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했다. **-나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 본다면** 위에서 소개한대로 대학생활에서 군대생활 그리고 유학생활 및 직장생활 및 연구활동 등으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디트로이트는 너무추워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하고 이곳 레이저 회사 중역으로 옮겨 왔다. 얼마 후, 내 consulting company를 세웠고 레이저 가공 회사도 설립했다. 포드에 근무할때는 Mr. Laser at Ford라는 애칭을 받았을 때가 가끔 생각난다. 한편, 어찌다가 골프장과 연회 시설도 인수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나 잘난척 나서지 않으며, 착실한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점과 이왕한 번 사는 것 피상적으로 살지 말고 꾸준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점이 오늘의 나로 섰다고 본다. 나는 전형적으로 꼭 맥한 공돌이로 착실하게 살려고 한 평범한 SNU졸업생이다.

서울공대 입학 후 UC 버클리 석.박사 등 공학도 한길 한미 대기업 기술자문위원... 17개 미 특허 보유 기록도

받아 10년간 경영하여 이곳 신문에 몇 번 났다. 한 50명 정도 미국사람들 고용하였고 그들의 봉급을 벌여야 하는 책임 무거운 일이었다. 이곳의 한글 학교도 적극 지원하였고, 올랜도 작은 교회로 내려 와서 교회조직도 만들고 대지를 얻고 교회 건축도 했다. 교회 실무 장로였다. 교회, 골프장, 레이저 회사, 세 곳으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았다. 그런데 이곳 유지라는 사람들이 나를 한 인회장으로 추대 했으나 거절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직책을 맡아 바쁘게 활동적으로 20여년을 살다보니 건강이 안 좋아 졌는지 전립선 암을 진단 받고 모든사업을 정리했다. Slow down 한다는 것이 은퇴 후에도 할리타고 시 쓰고 운동 다닌다. 운동다니는 YMCA에도 동양사람이라고 천대 받고 싶지 않아 기부도 해 대우 받곤한다. 지나온 삶이 소극적이었었고 나름대로 주위에서 존경받으며 바쁘고 재미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젠 쉬엄 쉬엄 편히 살 생각이다.

-나의 삶의 성공담에 대해

- 미국에 오시기 된 이유와 직책은
나는 서울 공대 재학 중에 학보를 갔다 왔다. 대학을 술먹고 담배피고 노는데로 알아 공부하는 완전 뒷전, 운동이나 하고 놀러 다니다 보니 2학년 때 따라가기 엄청 힘들고 성적도 엉망이라 군대로 도망갔다. 군대에서 전방배치 받았지만 대학 초기에 운동장에서 산 덕분에 사단 농구선수로 차출되어 군대생활 쉽게 했고 복학해서 정선차리고 공부 제대로 해서 거의 스트레이트 A로 졸업, 상성에 취직했다. 선배 따돌리고 중한 직책을 맡게되어 늦게까지 근무하게 되었지만 안 되겠다 싶어 미국 유학을하기로 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정착했다. 포드 자동차 선임 책임 연구원, 미국 레이저 학회 지부장에 이어 로런스 공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consulting company 레이저 가공회사 설립,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기술자문위원으로 4개의 기술상을 받았고, 17개의 미국 특허 보유하기도 했다. TRW, Tomas & Bets, 포항제철, 현대 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술자문을 맡으며 골프장을 가지고 있을때 25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부부초청 감사만찬회를 가졌다. 그리고 레이저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은퇴했다.

-유학시절의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버클리는 아마 3, 4학년 성적이 아주 좋으니 이 녀석은 정선차리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준 것 같다. 학교에서 연구 조교로 돈 받으며 쉽게 공부했다. 히피들과 어울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박장, 와인너리, 국립공원 등 많이 놀러 다녔다. 학생회장(버클리 학생회, 북가주 연합 학생회)도 했고 춤도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태권도, 권투도 했다. 나중에 태권도는 미국 애들을 가르치기도 할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학회나 세미나 강연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것으로 안다
한국 사회에서도 조국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주말에 10여 만명이 모이는 극동과 볼란서 합작 디트로이트 강변축제(Far Eastern Festival)에 한국을 대표해서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치렀다. 미시간에서 한국아동을 입양한 200여 가정을 위해 한국 문화강좌를 8주간씩 8년을 했다. 디트로이트 한인 장로교회 건축위원으로 또, 교육부 책임자로 기획위원으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다. 한국정부로부터 기술세미나로 초청받아 기술강연도 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 현대그룹의 한 회사 사장으로도 초청 받았지만 아이들 문제로 나가지는 않았다. 한국과 미

지 뒤 간섭할 수도 없고...ㅎㅎ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그동안 세계일주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다. (참고: 블로그 http://blog.daum.net/howoljib 여행기편) 위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시집과 여행에 대한 상식 각 여행지에 대한 소감 등 많은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연안 우주여행이 아닌 지상의 여행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한 종류의 여행은 새로운 자연을 접하는 경험이겠고, 다른 여행은 인간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경험이겠다. 물론 어느 여행이던 두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만 주된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행의 성격을 좌우 하겠다. 다녀온 여행지는 지면상 다 소개는 못하고 블로그 참조바란다. 고국 방문여행/Iceland Travel Diary (7/18/19 ~ 7/30/19) Return to U.S. & Epilogue/지중해 연안 Florence, Uffizi museum/Super truck, Glacier, Seljalandsfoss Waterfall /필라델피아 기차 여행/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와 진화론의 갈라파고스 제도/ 페루와 잉카 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쿠르수 여행 및 많은 여행지가 있다.

기차여행은 추억과 낭만이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차 여행. 내가 포함된 공간을 기차가 나른다. 1,600킬로(m)를 하루종일 달리느라 힘 쓴 것은 기차였는데 파곤해 진 것은 나. 앞으로 긴 기차여행, 특히 여러 날이 걸리는 관광 여행을 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여행은 나의 기차 여행에 대한 동경과 추억의 낭만을 만족시켜 주었다. 기차 여행에 대한 아련한 동경도 계속 가슴에 남아있다.

고국방문은 자주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고, 늙어가니 어쩔 수 없이 애뜻하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 연어와 같이 생의 사이클을 완성하고 싶다. 고국에 대한 연민은 일방적 짝사랑이다. 인천 공항은 국제수준을 넘어 세계 최고의 시설, 자랑스럽다.

자연과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접하는 경험으로, 파타고니아, 쿠바, 페루와 에콰도르를 들 수 있겠다. 두번째로 작은나라 모나코 여행은 예전으로 돌아가 문명 중심의 관광이다. 지중해 연안의 볼란서와 이태리 항구도시들과 면적이 2평방킬로인 두번째로 작은나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걸치는 지중해 연안 지역. 리비에라는 이탈리아어로 '해안'이라고 부른다. 리비에라는 이탈리아어로 '해안'이라고 부른다. 리비에라는 이탈리아어로 '해안'이라고 부른다.

- 서울대 후배동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짧은 나머지 인생, 건강하고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자. 그리고 이왕이면 신나게 살자. 교포로 가발 같은 한국제품을 파는 교역만



아내와 함께

는 뜻이다. 리구리아해의 일부지역으로 연중 기후가 온난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칸, 니스, 몬테칼로, 산레모 등의 휴양 도시가 있다. 1년 내내 꽃이 재배되고 향수 제조가 성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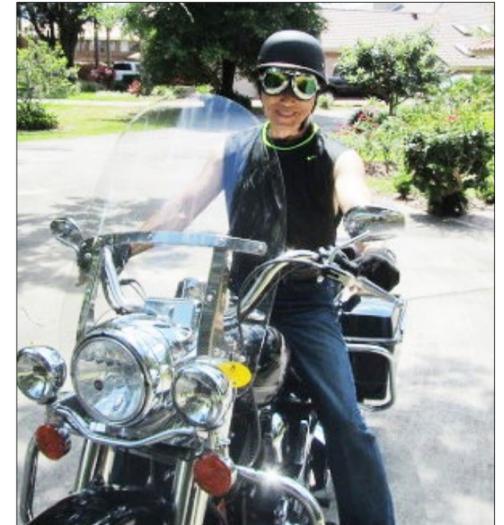
- 취미생활이 있는지
나는 Harley-Davidson Motorcycle타기를 즐긴다. 나이가 많아 위험하니 이젠 그만 타

다양한 활동에 스트레스로 압투병...모든사업 접고 은퇴 후 필명 '호월'로 활동, 25권 시집 발간 등 문학활동

라고 주위에서 난리지만, 노을을 배경으로 바람을 가르며 시골길 달리는 기분이 최고다. 또 좀 위험하셔서 더 매력에 있는 것 같다.

- 앞의로의 계획은
은퇴 삶에는 마음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참 중요하다. 이 나이에 잘나 봤자다. 진실된 사람이면 교육과 배경에 상관없이 존경하는 친구다. 호월의 습작시 블로그(blog.daum.net/howoljib)에 실린 시 "나는 너에게"를 참조하기 바란다. "공부나 하던 놈"이 아니고 공부도 안하고 동네 애들과 놀기에 정신 빠져 어영부영 생 각없이 살아갔던 유년에서 나이 들어가며 철이 점점 났다고나 할까? 나는 Integrity를 중히 여기고 진실되게 살아 오려고 했고 앞으로 남은 생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한다. 많이 성취하기 보다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싶다. 이젠 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다 접고 조용히 생각하며 살려고 한다. 2층서재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홀로 "멍때리기" 하는 시간을 즐긴다.

- 서울대 후배동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짧은 나머지 인생, 건강하고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자. 그리고 이왕이면 신나게 살자. 교포로 가발 같은 한국제품을 파는 교역만



이 애국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행위도 애국이란 것 마음에 새겨두자. 정치를 포함하여 세상사를 토론할 때, 주제를 벗어나 토론에서 이기려고 상대방 인신 공격으로 변하면 토론이 안되고 감정만 나쁘게 된다. 각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한국 신문 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더 낮은 대안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비난과 공격에만 치중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 미주동창회는 회원들을 위해 잘 봉사하여

시집 '시 나무 접목(좋은땅)에 들어있는 '별의 자손'이란 제목의 시 일부분이다. 이 시를 포함해 '세상은 밝다', '열화나트름', '그린 에너지 공장', '인공 눈깔' 등의 시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가 과학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호수의 뜬 달이라는 뜻의 '호월(湖月)'이란 필명으로 출간한 시집에서는 과학과 문학을 융합해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저자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학관련 내용이 들어있긴 해도 딱딱하거나 난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가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집에는 인터넷 시 사이트에 실렸거나 월간 '우리시에' 게재했던, 또 현지 지역신문에 연재했거나 동창회보 등에 기고했던 시들이 실렸다. 특히 저자가 눈을 감고 나선 우주여행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시가 눈에 띈다. '케플러-452b', '외계인의 천국', 'Multiverse: 다중 우주 혹은 평행 우주', '별의 자손', '우주 교향곡' 등 우주를 다룬 시다.



- 시집에 대해 소개한다면
연합뉴스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로 대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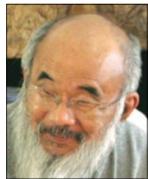
"내 본향은 별이다/ 태고에 반짝이는 별이/ 고운 고압인 자신의 내부에서/ 수소 영양분으로 내 몸의 구성 원소를 형성했고/ 오랜 후에 그 원소들이 나를 구성했다...(중략) 미천해 보이는 나지만/ 이래 뵈도 내 족보는/ 태고 어머니 별에서 시작된다"

약/력

- 서울 출생
- 서울 대학교 공과 대학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석, 박사
- 미시간 대학 MBA
- 포드 자동차 선임 책임 연구원, 미국 용접 및 레이저 학회 지부장
- 로런스 공과 대학 초빙 교수, 한국과 미국 대기업 기술 자문 위원
- 미국 용접학회지(Welding Journal) 논문 심사위원, 레이저 전문지 (Laser Focus) 자문위원 4개의 기술상 수상, 17개의 미국 특허, 60여편의 논문과 보고서.
- 레이저 회사 설립, 운영
- 우리사회 초대 시인
- 저서: 54편의 우주 시가 담긴 '우주 시 모음집'을 포함해 25권의 전자 시집 발간
- 필명: 호월(湖月)

개인 습작시 블로그: http://blog.daum.net/howoljib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받은 상



장소현 (미대 65)

/ 동문작가 소개 /

추상표현주의 화가 최옥경의 작품세계 ②

<1940-1985>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형언어-

<지난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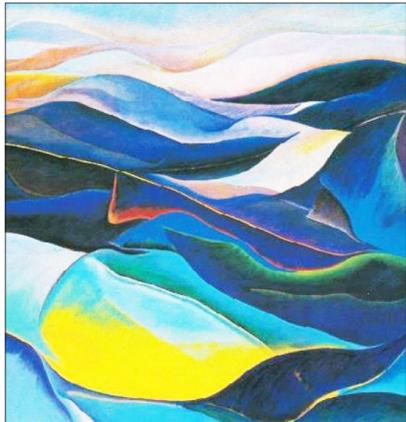
■ 미국에서 왕성한 작가 활동 (1971-1978)

최옥경은 1971년 첫 귀국전을 열었으나, 한국 미술계의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했다. 스스로도 미술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1978년까지 본격적인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무렵의 상황을 미술평론가 이경성 선생은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이경성 선생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옥경 회고전>을 개최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고독하고 내성적인 그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자기세계에 골몰해서 주변의 관심에서 초월한채 살고싶은 작가에게는 한국의 풍토가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이와 같은 방향은 1979년 귀국 후에도 계속됐다. 비록 몸은 한국에 있어도 늘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

최옥경은 두번째 미국생활을 한 1970년대부터 비로소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60년대의 자유분방한 감정분출에서 한층 걸러지고 절제된 감성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귀국 전 해에 제작한 <미처 못 끝낸 이야기>(1977)는 이전의 거칠고 격렬한 붓질에서 벗어나 우아하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선들과 중간톤이 많이 가미된 색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교차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생활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미국 생활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뉴멕시코 같은 지역에 살면서 활동했다. 자연히 작품 경향도 변화를 거듭했다. 조지아 오키프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생활환경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이전과는 달리 원색보다는 밝은색깔을 주로 사용했으며, 형상과 색채, 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험이 돋보인다. 뉴멕시코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본격적인 색채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뉴멕시코에서 활동한 76년 이후의 작품들은 자연에서 얻은 주제와 색채에 대한 관심이 결합돼, 율동적인 곡선으로 가득차게 된다. 한국의 단청, 민화 등의 전통적인 색감과 뉴멕시코



장소현의 작품 '산'

의 자연에서 얻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그의 작품세계는 한층 풍성해진 것이다.

■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뜨다 (1978-1985)

완전 귀국한 78년 이후 85년 사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 여러 곳을 여행하며 눈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나이들어, 오랜 외국생활에서 돌아와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난 동양화에 그려진 산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산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양화 속에 그려진 것과 같다는 것을 새삼 발견했다.” “내 그림 속에는 생명체들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 그 생명체들이 숨쉬는 색상이 나타나고 있다. 색상은 찬란한 태양광선에서 찾아보았다. 이런 작업들은 자연과의 만남에서 추려 내려진 경험들로서, 아무래도 자연은 내 그림의 고향이다.”

- 최옥경의 작가노트에서

최옥경은 한국의 산과 자연에서 자신의 추상표현주의의 완성을 본 것이다. 물론 자연에서 출발하지만 그 자연의 질서를 자기 내면에서 해체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신과 감각으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적인 회화에 뜨거운 집착을 가졌던 그는 특히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보았던 경상도 지방의 산의 능선에서 깊은감명을 받아, <경산산에 경의를 표하며>(1981) 같은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최옥경 특유의 섬세하고 여성적인 감성이 잘 나타난 이 작품들은 강렬한 태양광선과 광선에 의해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를 밝은 파스텔 톤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정된 수평구도를 바탕으로 한 간결하고 압축된 화면구성에 유려한 선의 흐름과 공명(共鳴)하는 색채가 매우 시적인 감흥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는 그 지역의 자연이 미국에 살던 시절 뉴멕시코에서 받았던 인상과 비슷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는 거제도 학동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어서, 학동에다가 친구들과 돈을 모아 집 한 채를 사들 정도였다고 전한다. 미래의 자신의 집에 달아 놓을 <무무당(無無堂)>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고 있었다고 한다. (<무무당>이라는 당호는 여의도 화실에 사용했다.)

최옥경은 1985년 작업실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 요절하는 바람에 그의 작품세계가 중간에 꺾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사망한 탓에 작가가 이 시기를 어떻게 소화하여 변모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사망 시점이 작가의 화력에 있어 눈에 띄는 조형적 변화의 길목이었음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미술평론가 이영수의 작가론에서

최옥경은 1940년생이므로 살아 있었다면 올해 80세이다. 살아서 계속 한국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그림을 그렸다면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졌을까?

/ 음악칼럼 /



김영석 (음대 74)

Gustav Mahler와 그의 여름 오두막집②

<지난호에 이어서>

이곳에서의 말리의 일상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따랐는데 매일의 생활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는 보통 6시와 6시 반 사이 일어나서 조반을 준비시켰고, 조반이 오두막집에 도착할 때쯤 자신도 오두막집에 도착해서 난로를 지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난로에 불을 지필 때마다 데는 일이 많았는데 항상 무얼생각 하는 듯 보였고 이러한 일에 매우 서툴렀다고 한다. 아침 식사는 대체로 금방 끓인 커피, 빵, 버터, 잼이었는데 과일 잼은 매일 조금씩 달랐다. 오두막집은 벽돌로 지어진 조그마한 방 하나에 창이 세 개 나있고 피아노가 중간에, 책상과 의자가 전부였다. 벽에는 괴테 전집과 칸트가 꽂혀 있었고, 음악적으로는 바흐 정도만 있었다고 한다.

점심때 즈음에는 호숫가에 있는 Villa로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었는데, 오두막집에서 작곡을 할때에는 항상 오래되고 편한 낡은 옷을 즐겨 입었다. 그리고 호숫가로 가서 항상 같은 장소에서 카누를 타든지수영을 하였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호수주위를 산책을 하였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꿈을 꾸는 듯, 속세를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Slovenia를 떠나 오스트리아 Hohetauern National Park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Dolomite로 가는 길에 Dolomite 입구에 위치한 말리의 마지막 여름 오두막집을 방문했다.

말리의 세번째 여름 오두막집(Composing Hut)은 Toblach에 있는, 현재 Gustav Mahler Stube라는 이름을가진 조그만 호텔이다. 이 호텔에는 작은 동물원이 딸려 있는데 동물원 안쪽에 말리가 작곡을 하던 여름 오두막집이 있다.

말리의 생존 당시에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Toblach(Dobbiaco)는 1919년 이후 이태리 영토로 편입되었는데달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의 하나인 Tre Cime 혹은 Drei Zinnen이 위치한 Dolomites국립공원이 25Km 정도 떨어진 지척에 있다. Vienna에서는 Graz를 경유하여 520Km, 잘츠부르크

에서는 약 23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이다.

1907년 비엔나 국립오페라를 사임한 말리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 미국 메트로폴리탄

은 교향곡 10번이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죽음의 공포와 이별, 부인 Alma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뒤엉켜 있는데 말리가 교향곡 9번에 해당하는 “대지의 노래”에 9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Dolomites에 도착한 Mahler



이태리 Dolomites 국립공원에서의 필자



세번째 오두막집이 있는 현재 Gustav Mahler Stube 라는 이름의 호텔

오페라 하우스로 향했는데, 1908년 한 시즌 동안 메트로폴리탄에서 지휘한 뒤 곧 이어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의 지휘자로 제안을 받았다. 이후 말리는 1911년 죽을 때까지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지휘활동을 이어 나갔다.

1907년 당시 심각한 심장병의 진단을 받은 말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인 알마의 외도로 인한충격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는 시기를 보내야만했다. 이 무렵 심신이 약해진 말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에게가서 자신의 정신분석을 의뢰 했다고도 한다.

이 시기에 작곡된 작품으로 “대지의 노래”와 교향곡 9번, 그리고 결국 미완성으로 남

말리가 사랑하였던 Salzkammergut, Berchtesgarden(독수리 요새라고 불리는 히틀러의 별장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Dolomites... 그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준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고 그의 오두막집을 둘러보면서생긴 그곳을 거닐었을 말리가 느꼈던 자연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환희와 고통, 절망과 체념을 온 영혼으로 새겨넣은 그의 음악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1911년, 말리는 먼저 간 딸 옆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51세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 혼수상태의 그가 마지막 내뱉은 말은 “모차르트!...모차르트!”였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원고 모집합니다

www.snuua.org

서울대학교미주 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 | | | |
|--------------------------|------------------------|--------------------------|---------------|
| 위원장: 윤상래 978-386-5510 | 신용남 회장 646-523-9606 | 노영호 차기회장 626-991-4457 | |
| 이용락 (사카고) | 황효숙 (미네소타) | 손재욱 (콜라) | 정명희 (워싱턴D.C.) |

제17대 회장 (2023. 7. 1 - 2025. 6. 30) 선거 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 일정

2020. 12월 31일: 차차기회장추천서 접수 마감 2인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
- 2021년 6월: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확정.

근거규정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2인선 위원



이규양(천문 62)

/ 체험기 /

모로코 탈출기 ②

<지난호에 이어서>
어떤 Airline은 Online으로만 예약이 된다 해서 그렇게 따라하면 거의 끝날 무렵에 예약창구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거절당하고, 또 어떤 Airline은 예약창구에서 물어보면 Online 예약만 된다고 거절당하며 점점 맥이 빠져나갔다.

이럴 때 위기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집단이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Online을 이용한 사기집단 Scam에 걸려들어 가짜 항공사 사기를 당했다. Online으로 예약한 e-Ticket을 들고 저녁 7:30에 Paris로 가는 SmartLynx란 항공편을 공항 출국 안내판에서 찾는데 항공사 이름이 안보이기에 옆에서 안내판을 보고 있는 다른사람의 비행기표를 보니 우리와 같은 SmartLynx항공사로 Tokyo를 가는 일본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출발시간과 도착지가 우리와 다른데 Flight Number가 우리와 같았다. 즉시 공항 Information Desk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SmartLynx란 항공사는 본적이 없다고 한다. 물에 빠져서 잡은 나무토막이 지푸라기일 줄이야.

마땅히 배를 채울걸 사서 먹을 곳도 없지만 너무 Stress와 Pressure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을 겪고 하니 배고픔도 잊고 오직 이 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 알아있을 의자도 없는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가운데서서 Luggage 두개를 아내와 번갈아 지키며 이리저리 가능한 항공편을 다시 찾아 나섰다. 또 다시 Air France표 사는 곳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영국 British Airways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특별기를 띄웠다는 소식이 들렸다. 불란서보다는 영국이 미국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Air France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미국시민이라고 거절당한 동료들이

생각났다. British Airways 표를 Online으로 두장 구매 기다리던 Air France 줄에서 나와 British Airways창구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영국시민이 아니라고 기다렸다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줄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얼마 뒤 탑승을 했는데 하루 종일 허탕 치고 그곳을 떠나지 못했으므로 비행기가 떠야지 떠날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려고 텅빈 공항에서 긴 의자를 찾아 이리저리 찾았는데 모든 의자마다 팔걸이가 있어서 누울 수가 없어 앉아서 밤을 새웠지만 그래도 편한 마음이 피곤을 극복해줬다.

Morocco를 탈출하기 위해 26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한 후 Credit Card 사용내역을 Check해 보니 Marrakesh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사기 당한 비

이곳 저곳 Urgent Care에 가서 검사를 부탁했으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못하고, 이튿날 Doctor Office의 도움으로 겨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일주일 넘어서야 나온다고. 그런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체온이 100도를 넘어 Extra Strength Tylenol을 과복용해도 열이 안내려가고 식사도 못하고 구토까지해서 결국은 Ambulance를 타고 Emergency Room으로 가야했다.

병원에서 다시 Covid-19 Test를 한 후 양성으로 판정돼서 5일동안 격리 입원 후에 다행히 퇴원해서 집에서 건강을 회복중이었는데, 열흘 전에 Urgent Care에서 한 Test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퇴원 후 뒤늦게 연락이 왔다.

이 와중에 아내와 계속 같이 있었던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Covid-19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 "You are not qualified" 라고 증상없는 사람은 못해준다고 해 아직 못받아 봤다.

US State Department에서 email이 왔다. Casablanca의 미국영사관에 보낸 email 답신인 것 같다. 아직도 항공편을 못구하고 Morocco에 남아있으면 알려달라고 집에 도착한 후에 받았지만 그래도 자국민을 생각 해주는 미국정부가 고맙았다. 우리를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영국 British Airways, 미국 United Airline, 그리고 아내를 살려서 건강하게 돌보아준 Virginia의 Fairfax Hospital 의료진, 빠르게 Ambulance를 마련해준 First Responder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은세상이 죽음의 전염병과 경제적 고통에 휩싸인 어려운 이때에 살아서 밥을 먹고 살수있는 것에 대해 감사,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린다.

부푼 모로코 여행은 악몽으로 변해 항공권 사기 당하며 겨우 집에 도착

아내의 코로나 양성판정에 힘든시간 미 정부와 의료진 덕분에 이겨낼 수

기내에서 몇시간을 기다려도 이륙할 기미가 없어서 또 못 떠날게 아닌가 하는 신경이 쓰였다.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비행편이 아니고 특별한 영국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임시로 마련했기에 늦게 나타난 영국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태우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튿날 새벽 1시경에 London공항에 도착했다. 조금전 Marrakesh공항과 너무 대조되는 텅 빈 London 공항이었다. 내가 어느나라에 국적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준 이번 여행은 이제 정말 6시간 후에 집으로 가는 우리 미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을 좀 자

행기 표를 포함해서 \$12,000이 넘는 비용이 Credit Card 에 Charge 됐다. 환불을 받기 위해 항공사와 Credit Card 회사, 그리고 여행사와 얘기를 해야 했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과의 직접 통화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오래 기다리다 겨우 통화가 되면 연결이 끊어지고 또 다시 걸어서 반복하느라 긴 시간을 써야 했다. 환불을 받으려 여러날을 보냈다. 아직도 Morocco정부가 취소시킨 Royal Air Maroc으로 부터는 못받았지만, 사기당한 항공표는 Credit Card 회사가 나서서 환불해줬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심상치 않은 건강상태가 보였다. Covid-19감염을 의심했으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양수진(간호 80)

/ 여행기 /

양수진의 자전거 타고 고국여행 ②



<지난호에 이어서>
앗! 어제 급언덕을 오르다 체인이 빠져 다시 자리에 넣어주었는데 아마 shifter에 우리가 간듯 낮은 기어에 놓으면 앞 드레일리에 체인이 닿았다. 충추에 Bike Pit이라는 곳을 찾아 11시에 자전거를 고치고 12시가 넘어 출발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은정이가 서울로 돌아가서 종주 자전거길 초입에서 우리 헤어지고 나홀로 속박이다.

수안보 통과! 온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4시 전에 이화령을 올라야해서 계속 전진. 이전과 같이 예쁜 강가 길은 아니지만 이화령을 오르는 길은 노랑 주황 빨강의 단풍이 나를 반기며 낙엽위를 잔차질하는 가을의 또다른 아름다움을 안겨주었다.

문경새재는 계속 오르막인데 아주 완만했다. 이화령 전에 소조령은 어딜까 하고 계속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소조령을 넘었다. 휴! 이정도면 겁을 안내도 될 듯. 드디어 이화령 안내가 시작되며 새보다 더 나은 잔차편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화령 인증센터 5km부터 시작,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힘이 되었고 아름다운 단풍 너울들도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 고개를 넘어 경상도와 충청도가 이어지고, 조선시대 100만명이 넘는 보부상들이 어깨짐을 지고 다니던 길이었을까. 중간에 에너지바 한개 먹고 물한통 마시고 결국 이정표가 눈앞에 나타났다. 3시40분! 사진으로 축하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도 사랑스런 풍경이었다. 500 meter 정도의 높이로 미국 산에 비하면 별로 높지 않지만 그 풍경이 너무도 낯익고 정감가는 내 고향국토임을 어찌 하리오~~. ^^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법. 눈썰미 휘날리도록 신나게 내림을 달렸다. 문경읍에 도착하니 약돌 한우와 문경사과축제였다. 한우고기 2인분을 혼자 실컷 먹고 나니 어둑해져, 싱싱한 사과 한개를 사고 야간 라이딩까지해서 문경 온천에 도착, 드디어 소원을 풀었다. ㅋㅋㅋ 이화령은 a piece of cake! ㅋㅋㅋ겁내지 마세요.

앗! 벌써 네째 날이다. 오늘은 같길이 멀다. 어제 상주 상풍교까지 갔어야 했는데 잔차를 고치느라 시간이 걸려 문경에서 머물렀고 158km정도를 달려 강정 고령보에 도착해야 설곳이 있기 때문이다. 출발 가즈아! 초반에 멋진청년을 만나 자전거동무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름이 Paul인데 미국에 유학해서 10년정도 거주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어

제 이화령을 밤에 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119까지 불렀단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손가락은 부어 접어지지 않는데도 정말 경주마처럼 잘달렸다. 새파란 젊음이 부러운 때였다. 아무튼 이 친구 덕택에 130km를 달릴수 있었다. 계속 길을앞서 가이드해주고 늦게오는 나를 기다려준 Paul이 정말 고맙았다. 내 덕에 이 친구도 오늘 많이 못가고 왜관에서 쉬기로^^. 젊은친구랑 다니니까 숙박도 젊은이들 취향인 M7. 상주는 너무도 예쁜도시다. 하늘도 놀랐다는 경천대는 소나무로 이루어진 경사진 공원인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구미는 공장도



시인데 아주 깨끗했고 온통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해 더욱 산뜻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재 자전거길을 끝나고 상주에서 시작된 낙동강을 따라 정말 잘 관리된 자전거 길이 무척 고맙았다. 갈대가 길옆에 늘어서서 손짓 인사를 하고, 작은 섬을 따라 등그렇게 돌아가는 낙동강의 신기한 모습도 흥미로웠다. 아직은 강의 상류줄기라 갈대지대가 많이 보였으나 강폭이 넓은 곳도 있어 구미보 칠곡보 상주보 를 통과하며,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손길들을 느낄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제의 이화령보다 오늘 언덕들이 더 어려워 숨차게 올랐다. 내일도 130km정도 달려야 하니깐. 인생도 때론 속도를 내야할 때가 있는것처럼..한국 자전거길 최고다. The River Bike Trail of Korea is the Best!

다섯째날, 이제 이틀 남았다. 130km를 달려야하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인지 간밤에 잠을 설쳐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일찍 출발, 가즈아! 그런데 마을과 달리 찍고싶은 경치가 너무 많았다. 어제는 그 젊은 친구 쫓아가느라 많이 못 찍었는데 오늘은 혼자이니 좋은 장면 나오려나? 강정고령보, 달성보까지 감탄사가 절로나는 트레일이었다. 문제는 내가 우회도로로 가서 달성보에서 시작되어진 동네 길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



고 남지로 오는 길은 국도로 와야했다는 고충이 있었다. 우회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무심사, 박진고개 그냥 정식코스로 가보는 걸 추천함.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사이에 갈대높이 3km 정도 펼쳐지는데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환상적 트레일이었다. 트레일 관리하는 사람이 풀을 기계로 자르고 바람으로 낙엽을 치우고 있었는데 정말 트레일이 깨끗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 낙엽이 트레일에 수북히 쌓였을텐데... 곳곳에 만들어진 공원과 체육시설들은 동네사람들이 즐기기에 좋아보였다. 중년과 노년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여 함께 즐기는데, 60대 되어보이는 분들이 골프같은 체를 들고그냥 밀어서 공을 홀에 넣는 재밌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업고 뛰는 경기, 야구경기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토요일이라 많아졌다. 우회도로를 선택한것 말고는 모두가 대만족이었다.

우회도로에서 눈에 쥐불을 놓는것도 보았는데 바로 근처에 터널은 지나는데 쥐불 연기로 숨을 못쉬게 힘들어 죽을뻔했다. 추어탕 먹고 회복되었는데 추어탕 집 아주머니 친절도 무척 도움이 되었다. 국토종주, 할수록 재밌고 또하고 싶고 운동네 다들려 구경하고 싶었다. ㅋㅋㅋ모두에게 강추한다.

여섯째날, 남북통일! 하나님 나라! 자전거 국토종주입니다. 간밤에 뉘었던 남지의 토마

토 모델은 최악이었다.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닌데 국토종주 라고 써 있어서 갔더니 정말 다시 나오고 싶었다. 그래도 아침에 라이딩으로 다시 기분이 상쾌해졌고 조금 가다보니 국토종주길이 다시보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이리저리 가는데 5명 한팀과 앞서가니 뒷서거니하며 함께가기 시작했다. 부산에 사는데 상주에서 출발했다. 국토 종주 내내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서 혼자 시작했다면 한번 놀라고, 나이 얘기하면 또 한번 놀랐다. ㅋㅋㅋ 내가 젊지는 않은 나이인가 보다.

국토종주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100km! 부담 없이 가는 거리다. 가을 걷기가 한창인 농부의 긴 담배흡입은 맛있어 보였다. 노란 논밭과 베이지 빛깔의 갈대밭이 출렁거리고, 갈대의 하얀 솜털이 뺨을 간지러며 겨울이 다가옴을 감추고 있었다. 강은 커지고 작아지고 보를 지나면 더 작아진다. 창녕 함안보를 거쳐 양산 물문화관, 부산에 오는 동안 트레일이 또 눈부시게 놓여 있었다. 눈 문제는 마을 통과다. 점심을 밀양에서 메기 매운탕으로 먹었는데 그럭저럭 머리가 들어있었다. 수영이 옆으로 길게 난 그머리. 약! ㅋㅋㅋ 그래도 넘 맛있었는데, 낙동강이 아닌 삼진강 태생이란다. 결국 4시에 부산 울속도 도착, 종주수첩 도장 찍고, 승리의 팡파레를 불고 그 친구들과 커피한잔하고, 함께 부산역까지 KTX에매하러 갔는데 자전거 안 실어준다. 떼쓰기 싫어서 그냥 버스타기로 하고, 사상역까지 차재운 후배가 알려주어 지하철 타고 표도 사고 호텔잡고 식당 찾으러 나가는데 차재운 후배와 36년 만에 만나는데 동기 영희와 마주쳤다. 어찌나 반갑던지! 재운후배의 인도로 고기집에서 신나게 배를 채우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돌이 또 교수직을 하고있어 대화도 잘 통해 재밌었다. 학창시절 어렸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이들을 모두 잘 키워낸 삶의 성숙한 사람들의 대화는 언제나 함께해도 기분이 좋았다. 차후배는 tea를 함께하며 조금더 시간을 보내고 또 전기 convertor를 사준다고 멋진데 돌아다니다 못하고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호텔에 와보니 종주수첩이 간데 없어졌다. 야마 주머니에서 빠져나보다. ㅋㅋ 조국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담은 국토종주를 마치며, 결국 종주 인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결국 하나님 안의 기쁨인것을 ^^

토요일 여의도 촛불 함성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도 아름다운 내 조국 한국의 민주적 발전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국 자전거국토종주, 자동차 여행과 달리 정말 해불만하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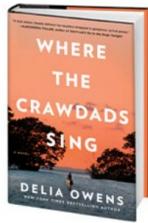


이병수(문리 65)

/ 문학 다락방 /

가재들이 노래하는 해변에서①

Delia Owens 'Where the crawdads sing'



이 글은 이영목(공대 59)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Potomac Forum에 명작 문학작품 소개된 내용이다. 이영목 회장에게 '문학작품' 글을 부탁받았는데 명작이나 고전을 선택하자니 너무 scholarly 한 생각이 들고, 요즘 미국에서는 'fiction/nonfiction' 이란 개념으로 더 쓰이기 때문에 2019년 뉴욕타임스 fiction 베스트셀러 중 가장 인기있는 소설 하나 소개한다.

젊어서부터 문학/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젠 '문학이란 딱지를 저에게서 떼려고 한다. 차라리 'book lover'라고하면 다소 민망하지만 받아들이려한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미국사람들을 봤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문학에 관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경험했다. 그들은 책을 읽는 단순한 재미를 즐기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Delia Owens가 쓴 'Where the crawdads sing' - 가재들이 노래하는 해변에서: 이소설은 뉴욕타임즈 하드커버 fiction 부문에서 지금 95주째 베스트10(45주 연속 #1)에 자리잡고 500만부이상 팔리고 있다.

Delia Owens는 원래 zoologist로 이책으로 데뷔한 미국 작가다. 남편 Mark Owens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동물학을 함께 연구하면서 memoirs Cry of the Kalahari, The Eye of the Elephant, Secrets of the Savanna 등을 썼다. 그들은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건너가 Kalahari Desert, Botswana에서 animal behavior를 연구하며, 야생동물 보호, 환경보호운동을 70년대에 선구적으로 벌려, 1996년 ABC "Deadly Game" 에 출연하여 방송되기도 했다.

Description
가재가 노래하는 한적한 North Carolina 해변에서 가족으로 부터 버려진 한 소녀가 외롭게 자라면서, 나쁜 boy

friend의 살인 용의자가 되는 스릴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설구성은 제3자 narration 형식을 취하면서, 소녀의 성장과정과 성인이되어 연루된 살인사건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flashing back 가법을 사용하고 있다.

PLOT SUMMARY

1952년 6살내기 Kya Clark의 어머니가 노스 캐롤라이나 해변 갯벌판의 허물어저가는 움막집을 나와 읍내로 가는 오솔길을 걸어내려간다. 어린 Kya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것을 직감한다. 그러나 오빠 Jordie는 엄마가 살기위하여 잠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거라고 동생을 달랜다. 그러나 엄마는 Jordie와 Kya위로 다른 삼남매와 주정뱅이의 난폭한 아빠를 남겨 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고 삼남매 언니 오빠들도 집을 떠나고, Jordi마저 Kya와 아버지를 놔두고 움막집을 떠나버린다. 이젠 Kya는 홀로 무능한 아버지와 앞으로 살아갈 공리를 해본다. 밥을 짓고, 읍내 Barkly Cove에 가면 사람들이 '갯벌 거러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기가 싫지만, 그로서리 쇼핑도 하는법을 배우고, 살림을 떠맡으며 힘을 낸다. Kya는 성질이 고약한 아빠를 달래가며, 밥을 해주고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아빠는 어린 Kya가 가여웠던지,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갯벌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개스독크를 갖고 흰상 베이트슝을 하는 Jumpin'을 Kya에게 소개해준다. Jumpin'는 아빠외에 Kya가 접촉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 이웃 갯벌마을에 사는 Tate라는 보이를 가끔 오다가다 만나기는 하지만... Narrative는 Kya가 자라는 과정과 Chase Andrew라는 젊은이의 살인사건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사건은 1969년 마을의 두 어린애들이 갯벌에서 Chase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발단이 된다. 마을 셰리프 Ed Jackson은 시체 주변

진흙에 발자국이 없는것으로 봐서 살인사건임을 감지한다. 이야기가 전개함에 따라 스트로리라인은 Kya의 힘든 사춘기 성장과정과 셰리프 Ed의 수사방향에서 왔다갔다를 반복한다. 왜냐면 그 당시 Kya와 Chase가 남몰래 갯벌에서 만나서 사귀는 사이였고, 사건 직전 Chase가 그동네 처녀 Prear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sheriff는 Kya가 사건에 관여했을것으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ya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갯벌새끼'라고 놀림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 둘수밖에 없어 제대로 학교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늘 차분하게 자신감을 키워갔고, 그자신감은 아버지를 포용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데 즐거게 되는데 까지 발전한다. 그러다 어느날 아버지는 엄마로부터 편지 한장을 받는다. Kya는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그 편지내용을 읽을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후 분통해하며 밖으로 나오며 술을 퍼 마시게된다.

아버지는 다시 알코홀릭이되고 학대하는 버릇이 심해지면서 한번씩 오랜기간 집을 나가 Kya는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수 밖에 없었다. 당시 Kya는 10살이었고 아버지는 그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갯벌에 나아가 머슴을 케어 Jumpin'에게 가져다 팔았지만 다른 어부들과의 경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즈음, Kya를 마음에 두고있는 Tate가 숲속에서 희귀한 새의 깃털을 모아서 Kya가 즐겨읽는 나무 그루터기위에 올려 놓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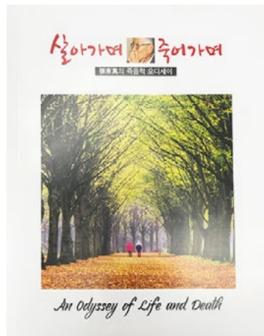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장동만(문리 55)

/ 에세이 /

살아가며 죽어가며



"재수 없으면 100살 까지 산다." 요즘 한국 노년층 사람들 간에 오가는 말이라고 한다. 오래는 살고 싶은데 오래 살기가 결코 수월치 않음을 하루 하루 몸으로 겪는데서 나오는 자조(自嘲) 섞인 자탄(自歎)의 말인 것 같다.

본 년 '80대 일기가 이번 호로 100회가 된다.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재수 좋아서' 오 늘까지 이끌어 왔다. 신문사의 배려, 독자들의 성원, 나의 건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밤낮 죽음 타령, 이제 사람들이 지겨울 거예요. 그만 집어치워요!" 그 동안 집사람에게서 수없이 들어온 타박이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왜 이런 글을 계속 써 왔는가? "아냐, 참새도 죽을 때는 '짹' 소리를 낸다잖아." 나도 그 "짹" 소리를 내고 싶었다.

대학 전공 철학, 언론인 경력 10여 년, 좀

건강지게 얘기해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융합된 '뜻 깊은 글'을 쓰고 싶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가면서 지나온 삶을 관조하고, 앞으로 닥칠 죽음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나의 이 같은 생각, 고민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동년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써보려 많은 애를 썼다.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나?" 의견을 듣고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어 그것을 소재(素材)로 글을 써 왔다. 나로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글이 과연 "글 다했느냐"는 독자가 판단할 것이고...

다음은 공자가 말년에 제자 자공(子貢)과 나누는 대화다.

공자: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려 한다(

子曰, 子欲無言).

자공: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저희는 무엇을 기록 하나까(子貢曰, 子如不責則小子何述焉?)

공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子曰, 天何言哉?) 말이 없어도 세계전은 저절로 운행되고 만물은 살아가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萬物生焉 天何言哉?)

-논어 양화 (論語 楊貨)편 제9절.

감히 공자를 흉내 낼 위인은 못 되지만 이제 나도 입을 다물 때가 된 것 같다. '침묵은 금' 격언을 되새겨야 할 때인 것 같다. 새가 죽을 때 "짹" 소리도 한 두 번이지, 계속 "짹짹"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할 것인가? '쓰잘 데 없는' 말 많은 늙은이' 소리는 듣지 않아야겠다.

/ 문학서 /

'영혼의 음악' '알아야 보인다'



장용복(공대 58)

"영시와 서양 명화 입문서"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용복(공대 58) 동문이 금년 초에 영시 입문서 <영혼의 음악> 과 서양 명화 입문서 <알아야 보인다> 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어 80세를 기념하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남도 하라 싸고 내도 하고 싶고' 해서 그동안 써온 글 중에 2년 분을 보완해서 책으로 편집한 후 자비 출판하였다.

<영혼의 음악>은 유치원에서 부르는 동요에서부터 엘리엇(Eliot)과 달린(Dylan)에 이르기까지 100여 편을 골라서 영어 원문에 주석을 많이 달았다.

<알아야 보인다>는 서양명화 100여 점을 골랐다. 비잔틴에서 로트코(Rothko)까지 화풍의 변화, 그림의 배경 및 에피소드 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김정선(문리66) 동문은 이 책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었다. 주문문의: ybc308@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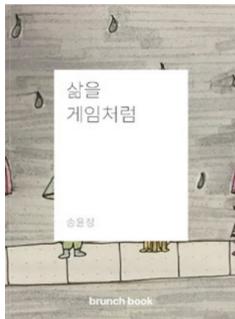
/ 에세이 /

e-북 '삶을 게임처럼'



송윤정(인문 89)

에세이스트인 송윤정(맥클린 거주 원내 사진)씨가 지난 몇 년간 써온 글을 모아 디지털 북 사이트인 브런치북에서 e-북 '삶을 게임처럼'을 펴냈다. 그의 첫 작품집이다.



작품집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전문가로, 두 아이의 엄마로, 한 가정의 주부로 정신없이 헛바퀴를 돌다 문득 멈추어서 들여다본 삶의 단편들을 모은 '에덴에서의 미소' '이방인' '레테의 강' '간절한 기도' 등의 에세이 30점이 올려져 있다.

송 씨는 "2014년 아프리카 리소토라는 나라로 출장 가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재로 쓴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라는 글로 워싱턴 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후 지난 몇 년간 워싱턴 한국일보 등에 실린 글을 모아 디지털북을 내게 되었다. 아름다운 세상과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작품집에는 그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느낀 생각들, 일상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세

상의 부조리에 대해 혹은 가슴 아플 때 쓸 아낸 글들이 진주(1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원칙(2장), 자유로운 혼을 위한 영가(3장) 등으로 나뉘어 수록돼 있다. 그는 DC 월드뱅크에 근무하는 금융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미학과,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워싱턴 문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작품은 웹 사이트(https://brunch.co.kr/brunchbook/lifeasgame)에서 볼 수 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 공고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서울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함
- 후보 대상** 서울대학교 동문 또는 서울대학교에서 장기간 봉직하신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를 빛낸 사람
※ (기) 추천자도 재추천이 가능하며, 고인(故人)도 추천 가능
- 후보 추천** - 추천주체: 대학(원), 기관, 총동창회, 개인, 단체 등 - 추천기한: 2020. 8. 14(금) 까지
- 추천 방법** 추천 서식에 후보자의 인적 및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공문을 접수처로 우송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ongal21@snu.ac.kr) 또는 FAX(02-875-9712)로 제출
- 수상자 선정** 추천된 후보자 중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의·선정하여 학사위원회에 추천, 학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
- 문의 및 접수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행정관(60동) 3층 대외협력팀
서울대학교 기획처 대외협력팀 ☎ Tel. 02-880-9712 ☎ Fax. 02-875-9712
공고문 및 추천서식 ☎ http://www.snu.ac.kr/snunow/notice



Boothbay Harbor

드디어 뉴잉글랜드에도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 선뜻 나서서 차를 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나, 이제 겨우 Covid-19 Phase I,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방콕하며 앨범에서 옛 사진을 찾아 보면서 보스턴에서 떠나는 상상의 뉴잉글랜드 바닷가 여행 2주 계획을 잡아본다.



Boothbay의 호텔

우선 NH Portsmouth에 들렀다가 Ogunquit Beach에서 1박, Kennebunkport에서 2박, Portland에서 1박, Boothbay Harbor에서 3박, Rockland, Camden 1박 머물면서 구경 하고 마지막으로 Bar Harbor, Acadia National Park에서 5박으로 폭 쉬며 바다, 호수, 산행을 함께 즐긴다. 사실 이중 몇 군데는 이미 다녀온 곳이지만 또 가도 좋은 그런 곳이다.

포츠머스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1905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현장, 약소 조선의 비참한 말로를 외면한채,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통치권을 슬쩍 넘겨준 사건, 어처구니 없이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로 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역사를 따라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 보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여행 계속



Ogunquit Beach

오광퀵 Ogunquit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



Kittery 옆에 서 있는 거대한 인디언

/ 여행 스케치 /

뉴잉글랜드의 바닷가를 따라가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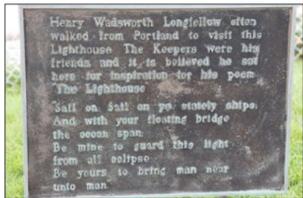


김정선(문리 66)

뉴잉글랜드 바닷가를 따라 여행을 떠난다. 보스턴에서부터 메인의 아카데미 국립공원 Acadia National Park까지 푸른 대서양을 따라가는 지방도로 Route 1길 곳곳에 역사가 잔잔히 배어 있는 작은 항구도시들, 아름다운 비치, 등대들이 추억에 남을 바다경치 Seascape를 그리고 있다.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Portland Head Light



Longfellow가 즐겨 찾던 곳, 그의 시 Lighthouse

는 비치 도시, 바닷물이 얼음처럼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의자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내려다본다.

조금 더 올라가면 케네벤크포트 Kennebunkport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란 곳, 부시 별장, 유명인사 별장이 있는 곳이다. 역사가 있는 Dock Square 와 Lower Village도 방문하고. Goat Island Lighthouse, Cape Porpoise, Goose Rocks Beach를 거쳐 Old



Pottery 아저씨

Orchard Beach도 돌아 보고 Cape Elizabeth의 Portland Head Light를 방문하는 option도 생각해 볼만하다.

포틀랜드Portland는 전형적 New England



길가의 Lobster Pound, 즉석에서 Cook



Red's Eats, 길가에서 파는 랍스터롤이 유명하다

도시이고, 특히 1791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일때 세워진 Portland Head Light는 사진사들이 즐겨 찾는 Fort Williams Park, Cape Elizabeth에 소재한 명물이다. 이 부근에 4개의 등대가 더 있고 19세기의 모습을 지닌 Portland Waterfront Historic District도 한번 방문.



부근에 Gallery도 많다

Pottery도 있고 이곳 Blueberry Jam도 있고... 2020년 8월 첫주말에 예정이었던 Maine Lobster Festival도 COVID-19으로 취소되었고, 2021년을 기대해 본다.

Boothbay Harbor는 Boston Logan 공항에서 170마일 정도거리, 매년 여름이면 Boothbay Harbor에 가서 일주일 머무는 친구가 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주위 경관이 아름다운 Pemaquid Point 등대를 다녀 볼 수 있다.

Acadia National Park, Bar Harbor까지는 110 마일 정도 가는 길의 작은 항구도시 Rockland, Camden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여기서 하루 더 머물러도 좋고.

Bar Harbor에 도착하면 여장을 풀고 천천히 Acadia National Park을 돌아보면서 Sand Bar, Southwest Harbor 도 다녀 오고 배도 타고 고래도 보러 가고 트레일도 따라가고 할 게 너무 많다.

www.snu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483,671

총 모금액 TOTAL

<모교발전기금 포함>

증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상 \$10,000 이상 실버 이상 \$6,000 이상

- 남(주) 강신용(사대 73) 광용결(문리대 59) 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 김재영(농대 62) 노병호(공대 61) 노재성(법대 58) 민병곤(공대 65) 박명근(상대 63) 박윤수(수리 58) 방영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의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창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웅오(의대 57) 전혜경(문리 6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인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정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중환(사대 54) 허기환(공대 66) 한귀희(의대 68)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북(주) 김정희(음대 56) 손석보(공대 68) 뉴욕 김광호(문리 62) 신용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윤정옥(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이진규(농대 60) 이재덕(법대 60) 이준행(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 69) 김문소(수리 61) 박경민(의대 53) 박영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윤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옥(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홍(법대 60) 민홍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워싱턴주 이화백(의대 55) 사(주) 남상용(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정 태(의대 57) 한재은(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민(문리 58) 미네소타 김관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조형준(문리 62) 메릴랜드 최지원(의대 61) 오하이오 김용현(경영 66) 중부텍사스 이광연(공대 60) 조지아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공대 64) 손재옥(가정 77) 이만택(의대 52) 주기목(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허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카네기음악회수익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증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시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uaa.org

www.snuuaa.org

7월 후원자

*증신이사 정재훈(공대 64)

| | | | | | | |
|------------|------------|-------------|------------|------------|------------|----------------------------------|
| 정재훈(공대 64) | 신동현(농대 49) | 권기현(사범 53) | 박희진(농대 78) | 이운순(의대 52) | 고애자(음대 57) | 서윤석(의대 62) |
| 김경수(치대 58) | 백옥자(음대 71) | 박용결(약대 56) | 이준무(음대 65) | 나두섭(의대 66) | 유영준(의대 70) | 정영자(사범 56) |
| 김명철(공대 60) | 염동해(농대 74) | 고 김용삼(음대) | 권철수(의대 68) | 김태환(의대 58) | 이선규(문리 65) | 정태광(공대 74) |
| 이범식(공대 61) | 박희진(농대 78) | 한성수(의대 54) | 임필순(의대 54) | 최중권(문리 59) | 김순자(치대 57) | 임창희(공대 73) |
| 서동영(사대 60) | 정세근(자연 82) | 윤상래(수의대 62) | 김중권(의대 63) | 지부 분담금 | 뉴욕 | **\$2,000이상 후원자 **\$500이상 후원자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94명)

Table listing donors for the Lifetime Memorial Fund, categorized by region (e.g., (G) 골드 이사, 남가주, 뉴욕, 워싱턴 DC, 메릴랜드, 미네소타, 하트랜드, 오하이오, 중부텍사스, 이광연, 조지아, 필라델피아, 휴스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텍사스, 시카고).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Table listing various financial contributions including 전회정산 이월금, 업소록 광고 후원비, 모교발전기금, 특별후원금, and various regional association funds.

Table listing donors for the Lifetime Memorial Fund, categorized by region (e.g., 김연화, 소진문, 이영우, 박성식, 정량수, 전무식, 플로리다, 휴스턴, 워싱턴 DC, 텍사스,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샌디에고, 시카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메릴랜드, 미네소타, 하트랜드, 오하이오, 중부텍사스, 이광연, 조지아, 필라델피아, 휴스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텍사스, 시카고).

동창회비 (2차 회기: 2020. 7. 1 ~ 2021. 6. 30)

*표: 2022년6월30일까지 내신분

Table listing dues and contributions for the Alumni Association, categorized by region (e.g., 남가주 SCA/NNV, 이광연, 조지아, 필라델피아, 휴스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샌디에고, 시카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메릴랜드, 미네소타, 하트랜드, 오하이오, 중부텍사스, 이광연, 조지아, 필라델피아, 휴스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텍사스, 시카고).

| |
|---|
| 남가주 CA |
| 공인회계사 |
|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
|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
| T: 213-616-1390 |
|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

| |
|---|
| AAMKO Consulting Co. |
|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
| T: 213-380-3801 |
|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 |
|---|
| 이강원 공인회계사 |
| 이강원 (인문대 76) |
| T: 213-387-1234 |
|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

| |
|--|
|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
| 강호석(상대 81) |
| T: 213-380-5060 (LA, CA) |
|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

| |
|--|
| STANLEY Cha, CPA |
| 차기민 (공대 85) |
|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
|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
|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 |
|---|
| 임춘택 공인회계사 |
| 임춘택 (상대 68)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
|---|
|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
| 김원철 (농대)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
|---|
| 권국원 공인회계사 |
| 권국원 (공대) |
|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
| 869 Irolo St., LA, CA 90005 |

기계 / 기술 / 전자

| |
|---|
| Link TV Media |
| 김원탁 (공대 65) |
| O: 818-514-6780 / M: 818-720-2373 |
|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
|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

| |
|--|
| Turbo Air, Inc. |
| 서치원 (공대 69) |
| T: 310-719-5422 |
|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 |
|---|
| Tayco Engineering, Inc. |
| 정재훈 (공대 64) |
|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
|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
| www.taycoeng.com |

| |
|-------------------------------------|
| 마켓 |
| Han Nam Chain Market |
| 하기환 (공대 66) |
| T: 213-381-3610 |
|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변호사

| |
|--|
|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
| 한태호 (인문대 75) |
| T: 213-639-2900 / F: 213-639-2909 |
|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
| www.haanlaw.com |

| |
|--|
| 신혜원 변호사 |
| 신혜원 (사대 81) |
| T: 213-385-3773 |
|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

| |
|---|
|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
| 이경희 (인문대 83) |
| T: 213-385-IMIN (4646) |
|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

부동산

| |
|--|
| Team Spirit Realty |
| 이중묘 (간호대 69), Jennie Lee |
|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
|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

식품 / 음식점

| |
|---|
|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
| 이승훈 (상대 74) |
| T: 562-633-7400 |
|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 |
|--|
| 해태 USA (Haitai Inc.) |
| 정정우 (수외대 74) |
| T: 323-890-0101 |
|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

| |
|---|
| 복창동 순두부 |
| 이태로 (법대 50) |
| B) (213) 382-6677 |
|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의료 / 병원

| |
|--|
| Seoul Medical Group |
| 차민영 (의대 76) |
| T: 213-480-7770 |
|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

| |
|--|
| VIP 성형외과 |
| 최광휘 (의대 70) |
| T: 323-965-1717 / F: 323-965-1855 |
|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
| akchoi52@gmail.com |

| |
|---|
|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
|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
| Christopher K.Chung MD |
|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
|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

| |
|--|
| Beverly Cardiology Group |
| Il Young Kim MD (의대 65) |
| Diana Kim MD |
|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
|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

| |
|--|
|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
| 정수만 (의대 66) |
| T: 714-539-6414 |
|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의료 / 약국

| |
|---|
| 여성 약국 |
| 임낙국 (약대 64) |
| T: 213-387-3030 |
|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

의료 / 치과

| |
|--|
| 황준오 DDS |
| 황준오 (치대 73) |
| T: 408-732-0493 |
|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

| |
|---|
| Seonho Ha Prosthodontics |
| 하선호 (치대 81) |
|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
|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

의료 / 동물병원

| |
|--|
| Animal Medical Clinic |
| 신동국 (수외대 76) |
| T: 714-990-1411 |
|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 |
|--|
| Francis Animal Hospital |
| 최재현 (수외대 66) |
| T: 909-627-0951 / 909-627-0715 |
|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 |
|---|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
| 한상봉 (수외대 67) |
| T: 510-232-3465 |
|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
|---|
| Van Buren Animal Hospital |
| 오영문 (수외대 64) |
| T: 951-687-2630 |
|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

유통 / 운송 / 원자재

| |
|---|
| SeAH Steel America, Inc. |
| 이병준 (상대 55) |
| T: 949-655-8000 |
|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

| |
|---|
| 자동차 / 서비스 |
| A.P.W. 자동차 부품 |
| 서동영 (사대 60) |
| T: 310-753-9636 |
|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 |
|--|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
| 최경석 (사대 80) |
| D: 213-262-3805 / M: 213-952-9911 |
|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
|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

기타

| |
|--|
| ACCU Construction, Inc. |
| 염동해 (농대 74) |
| T: 714-641-4730 |
|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

| |
|--|
| 라 캐나다 한인교회 |
| 독고원 (공대 65) |
| T: 818-790-7320 |
|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 |
|---|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
| 이상대 (농대 80) |
| B: 909-882-3800 / C: 714-323-8612 |
|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뉴욕 | NY: NJ

공인회계사

| |
|--|
| KL CPA & Associates LLC |
| 이경림 (상대 64) |
| T: 212-768-9144 |
|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 http://klcpagroup.com/klcpa/ |

리테일

| |
|-------------------------------------|
| New York Golf Center |
| 이전구 (농대 60) |
| T: 212-564-2255 |
|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 www.nygolfceneter.com |

변호사

| |
|---|
| 신응남 변호사 |
| 신응남 (농대 70) |
|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
| 158-14 Northern Blvd, 2F., # UL-2, Flushing, NY 11358 |

의료 / 병원

| |
|---|
| 백승원 위장내과 |
| 백승원 (의대 73) |
| T: 201-302-9774 / 732-744-9090 |
|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
|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 |
|---|
| 백승원 위장내과 |
| 백승원 (의대 73) |
| T: 201-302-9774 / 732-744-9090 |
|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
|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 |
|--|
| 석창호 위장내과 |
| 석창호 (의대 66) |
| T: 718-461-6212 |
|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

| |
|------------------------------------|
| 이창석 내과 |
| 이창석 (의대 72) |
| T: 718-762-4400 |
|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 |
|---------------------------------------|
| 박범렬 소아과 |
| 박범렬 (의대 75) |
| T: 718-229-1188 / 718-899-4600 |
|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
|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

| |
|--|
| 박중호 소아과 |
| 박중호 (의대 79) |
| T: 201-242-1002 |
|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

| |
|---|
| 윤세웅 비뇨기과 |
| 윤세웅 |
| T: 718-335-3333 |
|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
|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 |
|------------------------------------|
|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
| 김승호 (공대 71) |
| T: 718-463-0001 |
|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
| jeewha@hotmail.com |

| |
|-------------------------------------|
| 김치갑 통증병원 |
| 김치갑 (의대 73) |
| T: 201-541-1111 |
|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

| |
|--|
|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
| 김승관 (의대 70) |
| T: 718-321-2870 |
|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의료 / 치과

| |
|---|
|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
| 김성래 (치대 76) |
| T: 201-750-0011 |
|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

의료 / 동물병원

| |
|---|
|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
| 김기택 (수외대 81) |
| T: 201-814-0095 |
|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

유통 / 내일제품

| |
|--|
| Kiss Products, Inc |
| 김광호 (문리 62) |
| (516)625-9292/ (516)625-5599/1962 |
|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

워싱턴 DC | MD·VA·MN

| |
|--|
| 기계 / 기술 / 전자 |
| Drivetech, Inc. |
| 엄달용 (공대 69) |
| T: 703-489-2474 |
|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
| www.drivetechinc.com |

| |
|--|
| 김원식 (공대 61) |
| T: 612-961-6878 |
|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
| www.EVS-ENG.com |

식품 / 음식점

| |
|---------------------------------------|
| 우래옥 |
| 백행남 (문리 60) |
| T: 703-827-7300 |
|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 www.woolaoak.com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
|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
| 정세근 (자연대 82) |
| O: 703-663-8400 / C: 703-785-8467 |
|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

| |
|--|
| Fairway Asset Corporation |
| 남옥현 (경영대 84) |
| T: 301-279-6969 |
|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
| www.faclan.com |

필라델피아 | PA

건축

| |
|--|
| Timothy Haahs & Asso. |
| 손재욱 (생활과대 77) |
| T: 484-342-0200 |
|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
| www.timhaahs.com |

의료 / 치과

| |
|---------------------------------------|
| Blue Bell Family Dentistry |
| 김순주 (치대 95) |
| T: 610-278-1110 |
|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식품 / 음식점

| |
|---------------------------------------|
| 이즈미 일식당 |
| 최종문 (공대 61) |
| T: 267-408-7342 |
|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 |
|--|
| Flonomix Inc. |
| 박희진 (농대 78) |
| T: 503-648-0775 |
|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 www.flonomix.com |

기타

| |
|--------------------------|
|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
| 서울대 언어교육원 |
| T: 82-02-880-5488 |
| kjp@snu.ac.kr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동창회 후원금 | 동창 회비 | 업소록 광고비 | 특별 후원금 |
|---|--|--|--|
|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 | | |
|---------|-------|----------------------|-------|-----|
| 한글이름: | 영문이름: | 단체대: | 입학연도: | 지부: |
| E-mail: | | Cell Phone: | | |
| 주소: | |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 | |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 |
|--|
| 역대회장 |
|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
|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
|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
| 집행부 |
|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
|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
|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
|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김홍욱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
|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
|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
|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
|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 지역 | 이름 | 전화 | Email | 회계연도 |
|---------------------------|------|--------------|--|----------|
| 남가주 S.CA/NV | 회장 | 민일기 (약대 69) |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 Feb-Jan |
| | 차기회장 | 최용준 (수의대) |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 |
| 북가주 SAN FRANCISCO | 회장 | 임준원 (공대 77) | 408-220-4260 joonwlim@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최승희 (사회 81) |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 |
| 뉴욕 NY/NJ | 회장 | 조상근 (법대 69) | 201-913-0565 amcoinc@msn.com | July-Jun |
| | 차기회장 | | | |
| 뉴잉글랜드 MA/RI/NH/ME/VT | 회장 | 김정선 (문리 66) | 617-780-7205 jkim@systemic.com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텍사스 LA/DALLAS | 회장 | 강성호 (수의 81) | 214-215-4447 oah9999@yahoo.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텍사스 MT/CO/WY/NM | 회장 | 최용문 (공대 77) |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미네소타 MINNESOTA | 회장 | 송세진 (치대 78) |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샌디에고 SAN DIEGO | 회장 | 유재호 (공대 90) | 469-387-7922 blue9071@gmail.com | Nov-Oct |
| | 차기회장 | | | |
| 시카고 IL/IN/WI/MI | 회장 | 장윤일 (공대 60) | 630-305-8792 ychang@anl.gov | Jan-Dec |
| | 차기회장 | 김윤하 (공대 66) |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 |
| 애리조나 ARIZONA | 회장 | 오윤환 (공대 56) | 520-271-2601 youn.oh@gmail.com | |
| | 차기회장 | | | |
| 앨래스카 ALASKA | 회장 | 윤재중 (농대 55) |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 |
| | 차기회장 | | | |
| 오레곤 OR/ID | 회장 | 전병택 (상대 65) | bryanchon@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오하이오 OHIO | 회장 | 이성우 (상대 72) |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 |
| | 차기회장 | | | |
| 워싱턴 DC DC/MD/VA/WV | 회장 | 박상근 (법대 75) |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워싱턴 주 WASHINGTON | 회장 | 이명자 (간호 74) | drmialee@gmail.com | Jan-Dec |
| | 총무 | 임현민 (공대 84) |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 |
| 유타 UTAH | 회장 | 김한섭 (공대 93) |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조지아 GA/AL/MS | 회장 | 이영진 (공대 76) |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 |
| | 차기회장 | 김재호 (공대 80) | 404-372-2621 jhros@gmail.com | |
| 중부텍사스 MID-TEXAS | 회장 | | | |
| | 차기회장 | | | |
| 필라델피아 PA/DE/S.NJ | 회장 | 지흥민 (수의대 61) |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이성숙 (가정 74) | 610-417-4789 ssh1120@gmail.com | |
| 플로리다 FLORIDA | 회장 | 최희덕 (사대 68) |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캐롤라이나 SC/NC/KY | 회장 | 지원식 (공대 85) | 919-913-5570 wschee@gmail.com | |
| | 차기회장 | | | |
| 커네티컷 CT | 회장 | 유시영 (문리 68) | 203-305-3910 t60syu@gmail.com | |
| | 차기회장 | | | |
| 테네시 TENNESSEE | 회장 | 김상호 (공대 86) | 856-386-1094 kimsh@ornl.gov | Jan-Dec |
| | 부회장 | | | |
| 하와이 HAWAII | 회장 | 성낙길 (문리 77) | 808-956-2611 nsung@hawaii.edu | Jul-Jun |
| | 총무 | 전수진 (석공 89) | 808-956-8283 soojin@hawaii.edu | |
| 하틀랜드 IA/MO/KS/NE/AR/OK | 회장 | 이지현 (약대 77) | 913-814-9452 leech@umkc.edu | Sep-Aug |
| | 차기회장 | | | |
| 휴스턴 HOUSTON | 회장 | 구자홍 (상대 70) |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 Jan-Dec |
| | 부회장 | |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조석기 (상대 71) | skeycho@gmail.com | Jan-Dec |
| | 부회장 | | skeycho@gmail.com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종기 (공대 70) | 403-617-7585 movics@shaw.ca | Mar-Feb |
| | 부회장 | | | |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백승원 위장내과

“위장내과만 전문 진료합니다”

원장 백승원 (의대 73)

포트리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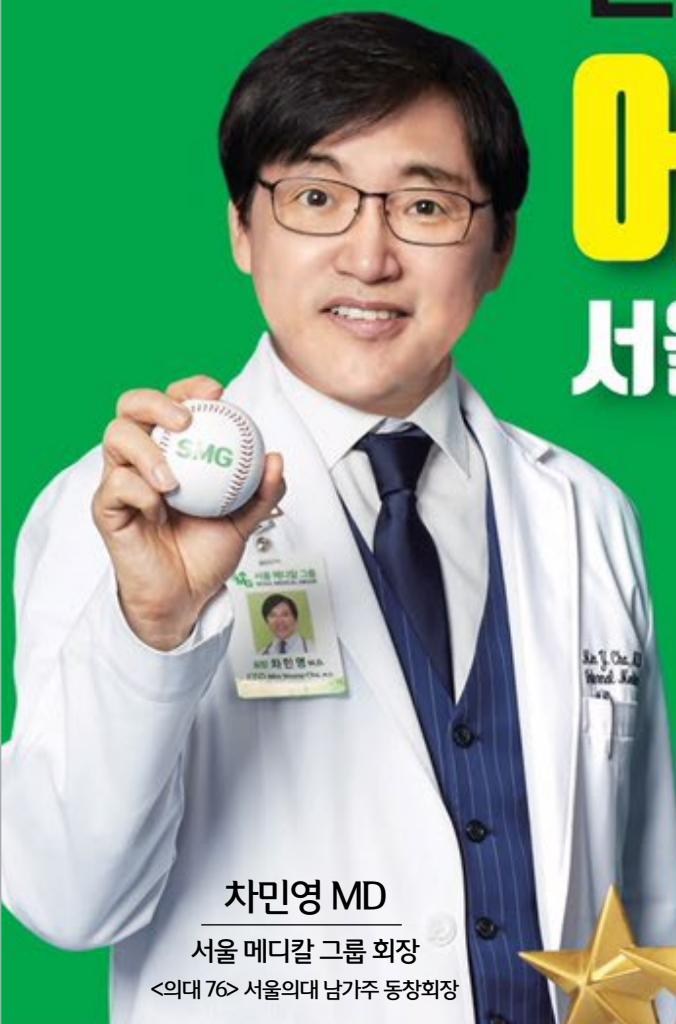
에디슨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EVERLY CARDIOLOGY GROUP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김일영 M.D (의대 65)

믿음직한 선발 에이스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MD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의대 76> 서울의대 남가주 동창회장

**SMG가 있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야구의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료 서비스처럼 ...



박찬호 선수
메이저 리그 코리안 투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시면 몸도 마음도 든든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서울 메디칼 그룹 의사들과 박찬호 선수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가장 빠른 리퍼
오랜 의료 경험과 운영 능력